

分类号：H315.9

学 号：

宋体四号



**专 业 学 位 硕 士 论 文**

“交际翻译理论”视角下的韩译汉句子翻译实践报告—以《韩国文化和韩国人》为例

|  |
| --- |
| **研究生姓名：X X X** |
|  |
| **指 导 教 师：X X X** |
|  |
| **专业学位类型：翻译硕士** |
|  |
| **专业学位领域：朝鲜语笔译** |
|  |
| **论文提交日期：2016年4月** |

**연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제 번역이론 지도하의 한중 문장 번역 실천 보고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중심으로**

**연태대학교 대학원**

**조선어번역 전공**

**학생: 악취운**

**지도교수: 우영란**

**이 论文을 文学硕士学位 请求论文으로 提出함**

**2016년 4 월**

**烟台大学学位论文原创性声明和使用授权说明**

**原创性声明**

本人郑重声明：所呈交的学位论文，是本人在导师的指导下，独立进行研究工作所取得的成果。除文中已经注明引用的内容外，本论文不含任何其他个人或集体已经发表或撰写过的作品或成果。对本文的研究做出重要贡献的个人和集体，均已在文中以明确方式标明。本声明的法律结果由本人承担。

论文作者签名： 日期： 年 月 日

**学位论文使用授权说明**

本人完全了解烟台大学关于收集、保存、使用学位论文的规定，即：按照学校要求提交学位论文的印刷本和电子版本；学校有权保存学位论文的印刷本和电子版，并提供目录检索与阅览服务；学校可以采用影印、缩印、数字化或其它复制手段保存论文；在非保密的论文范围内，学校可以公布论文的部分或全部内容。

（保密论文在解密后遵守此规定）

论文作者签名： 日期： 年 月 日

指导教师签名： 日期： 年 月 日

**摘要**

本文以韩国诸位大学教授联合编著的《韩国文化和韩国人》中的第二部分和第四部分为翻译对象，主要讲述了通过酒文化来看韩国人的日常和逸脱，以及通过交流行为来看韩国人的社会心理，从而使外国人可以更好地了解韩国文化和韩国人。本书的读者多为想要了解韩国文化的外国人，所以本书的写作多采取用事例来说明的方法进行，以便于外国人可以更好地了解韩国文化。 在翻译所选章节的过程中，遇到的最大难题就是参考哪种翻译理论，选择哪种翻译方法。如果按照韩国语原文的形式进行翻译，会使译文晦涩难懂，使目的语受众无法享受到与原语受众同样的启发、感动和美好。纽马克认为，翻译活动即是对文本的翻译，研究翻译不能离开文本。根据不同的内容和文体,纽马克提出了一套自己的文本功能及其分类。本报告选用纽马克的“交际翻译理论”作指导，因为译文读者多为中国读者，所以翻译时尽可能使翻译作品侧重于中文表现方法。故纽马克的交际翻译理论是最佳选择。

在翻译过程中，首先分析了选定的作品和交际翻译理论，查阅了相关资料。原文有大量句子需改变原来的结构以适应汉语表达习惯，所以，翻译过程中多采用了倒译、分译、省译等，解决了韩译汉的逻辑结构问题。因此，本次翻译实践过程中，主要以交际翻译理论为指导原则，以倒译、分译、省译为策略进行翻译。

**关键词：交际翻译理论 倒译 分译 省译**

**요약**

본 보고서는 한국의 여러 대학교 교수들이 공동 저술한 『한국 문화와 한국인』 중에서 제2 부분과 제 4부분을 번역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번역 부분은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 그리고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 심리를 주요 내용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독자 대부분은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려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의 창작은 주요하게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책을 번역할 때 어떤 번역 이론을 지침으로 삼고 어떤 번역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다. 한국어 관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원문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출발어 독자들과 같은 깨달음, 감동 및 묘미를 느낄 수 없게 된다. 뉴마크는 번역활동은 텍스트에 대한 번역이고 번역을 연구하려면 텍스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는 뉴마크의 "교제 번역이론"을 지침으로 작성하였다. 독자 대부분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되도록 중국어 표현 방식을 중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뉴마크의 "교제 번역이론"은 최선의 선택이다.

번역 과정에서 먼저 선정된 작품과 교제 번역 이론을 분석하고 교제 번역 이론에 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적응하기 위해 원문 중의 많은 문장은 원래의 구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역순법, 분역법 그리고 약역법을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상술한 번역법을 통해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논리 연결구조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므로 이번 번역 실천 보고서는 주로 교제 번역이론을 지침으로 역순법, 분역법, 약역법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키워드: 교제 번역이론, 역순법, 분역법, 약역법**

**목차**

1. 번역 대상 소개 1

1.1 작품 소개 1

1.2 저자 소개 1

1.3 번역 대상 선정 이유 2

2. 번역 과정 3

2.1 번역 준비 3

2.1.1 배경 지식 준비 3

2.1.2 번역 이론 준비 4

2.2 번역 과정 4

3. 한중 문장 구조의 차이점과 교제 번역이론 5

3.1 한중 문장 구조의 차이점 5

3.2 교제 번역이론 6

4. 사례 분석 7

4.1 분역법 7

4.2 약역법 10

4.3 역순법 14

5. 결론 18

참고문헌: 19

인사말 21

부록 A원문 23

부록B번역문 44

1. **번역 대상 소개**

**1.1 작품 소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은 여러 한국대학교 교수들이 공동 저술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 문화를 통합학문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명해 보려고 시도한 책이기 때문에 한국학 중에서 한국어학, (여성)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가정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이 동원되었다. 한국학은 학국문화의 정체성을 밝히는 학문이며 분야는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과 예술 등의 세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한국문화의 고유성이 크게 발견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 책의 제2부분과 제4부분을 번역 대상으로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제2부분은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이며 한국인에게는 가장 익숙한 문화인 술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가장 낯설다. 이 부분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서 술 문화를 통해 현재 한국사회의 단면을 읽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일탈 문화” 를 이해할 수 있다. 제2 부분은 “왜 술문화인가?”， 술 권하는 사회, 술 버릇과 술 문화, 문화인류학과 술 문화, 일상과 일탈 등 몇 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4부분은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이다. 사람들은 매일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한국인의 교류 행위를 살펴보면 다른 문화권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한국인의 만남의 양상, 무엇 때문에 만나는가, “정”의 관계를 지향하는 한국의 교류문화 등 몇 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국인의 교류특징이라 여겨지는 체면 세우기, 눈치보기, 평게 대기 및 다양한 심정(정 또는 한)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2 저자 소개**

이 책은 한국 문화에 대한 통합학문적인 저서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한국어학, (여성)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가정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학자이다.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정한 이 책의 제 2 부분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의 저자는 이기중이다. 이기중은 한국의 사회문화를 전공한 교수이며 한국 사회 문화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제 4 부분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는 심리학 전공자인 최상진과 한규석에 의해 작성되었다. 최상진과 한규석 교수는 심리학의 전문가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 잘 연구해 와서 심리학과 결합하여 한국인의 사회 심리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1.3 번역 대상 선정 이유**

한류로 인해 현재 한국 문화(한국 드라마, 영화 등)와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진다. 이 책은 체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연구한 저서로서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였고 한국 문화를 통합학문적인 입장에서 나름대로 조명해 보려고 시도한 책이다. 1998년에 초판 1쇄 발행 후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2013년 9월에 2쇄 발행하였다. 이 책은 놀이 문화, 술 문화, 종교, 교류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했는 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학 중에서 국어학, (여성)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가정학, 심리학 등을 전공한 학자들이 모여 작성하기 때문에 이 책은 큰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과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두 부분을 선택하였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낯선 술 문화가 한국인에게는 가장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술 문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일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 부분의 저자는 한국의 사회문화를 전공한 이기중 교수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사람 간의 교류는 가장 일상적인 행위이며 이 행위를 통해 사람의 심리와 사회 교류 문화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 심라학 최상진과 한규석 교수님이 작성되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통해 우리 중국인들이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의 번역 난이도가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적합하다. 본 본고서는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통해 본 한국 문화를 연구해 보고 번역할 때 뉴마크의 “교제 번역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되도록 독자를 중시하였다. 교제 번역이론은 번역자들이 자주 사용한 이론이고 자료도 많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제가 선정한 두 부분에 이런 문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번역 이론을 적용하면 문장 번역에 대한 분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졸업 실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 분석하기 쉽다.

**2. 번역 과정**

**2.1 번역 준비**

번역준비는 배경지식 준비와 번역 이론 준비 두 단계가 포함된다. 번역 작업을 계획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번역은 종합적인 학문으로서 한국어만 잘 하면 해 낼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는 배경 지식, 번역 기술, 번역 이론 등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번역과정에서 뉴마크의 교제 번역 이론을 이론적 지침으로 삼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제 번역 이론의 산생과 내용, 그리고 후학들이 그 이론에 대한 견해, 관점을 살펴보았다.

**2.1.1 배경 지식 준비**

본 보고서의 번역대상은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제 2부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및 제 4부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이며 저자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인 술 문화와 교류 행위를 선택하여 한국인의 사회 생활과 한국 문화를 설명하였다.

우선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같은 장르의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중국어판 도서도 많아지고 있다.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에 관한 중국어 책을 찾아 읽어 보고 한국 문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같은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해 어덯게 번역하는지도 잘 파악하였다. 예를 들면 제2 장절에서 “술 문화”, “일상” , “일탈”등 용어가 나왔고 제4장절에서는 “교류””관계의 심리학” 등이 나온다. 한마디로 이 책을 잘 번역하기 위해 이론적 바탕과 텍스트 성격을 세밀히 파악하였다.

**2.1.2 번역 이론 준비**

뉴마크는 텍스트 기능을 주로 정보적 기능(informative function), 정표적 기능(expressive function), 호소적 기능(operative/vocative function)으로 나눴다[[1]](#footnote-1). 텍스트 유형에 따라 번역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번역 두 가지 핵심 번역이론, 즉 교제 번역(communicative translation)과 어의번역(semantic translation)을 제출하였다. 뉴마크는 최초로 의미적 번역과 교제 번역 이론을 제기하였다. 교제 번역은 역문이 수용자에게 전달해주는 효과가 원어 텍스트가 전달하는 효과와 등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제 번역은 수용자를 더욱 중요시했는데 본 보고서는 문체에 따라서 교제 번역 이론을 택하였다.

가장 중요하는 것은 교제 번역 이론은 한 가지 극단적인 번역방법이 아니라 의역과 같이 모두 “중용지도(中庸之道)”의 방법을 활용한 번역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의적인 번역이 아니며 한 자 한 자 그대로 번역하여 어색하고 생경한 느낌을 주는 번역도 아니다. 교제 번역은 번역한 문장이 매끄럽고 알기 쉽고 또렷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적 특징을 추구한다.

교제 번역의 목적은 최대로 번역문이 목적어 독자들로 하여금 원문 독자와 똑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교제 번역의 중점은 되도록 충실하게 원문의 글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목적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언어 사용 방식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다.

**2.2 번역 과정**

이번 번역과정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9개월 동안 들이고 다음과 같은 준비 단계, 번역단계, 퇴고단계 그리고 최종 마무리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2015년 8월에 번역대상을 선정했고 2015년 9월은 번역 준비 단계이다. 번역 대상을 정했고 원문을 대체적으로 읽어보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다.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이 번역할 내용은 선정한 교제 번역 이론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번역을 더 잘 완성하기 위해 한국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는 실제 번역 단계이다. 이 번역 과정에 정확하게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을 표기하고 문장 중에 그대로 번역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교제 번역 이론과 대응하여 번역해 왔다. 10월에 일차 번역을 완료하고 번역문만 읽으면서 어색한 부분을 찾고 일차 수정을 하였다. 11월에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전체적으로 2차 수정을 하였다. 원고과 번역문을 대조하여 원문에서 누락한 부분을 보충하고 보완하였다. 2차 수정 과정에 본인이 잘 수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번역 이론과 결합하여 친구와 함께 토론하여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 주료 1차 번역했을 때 문장 순서, 용어 불당 등 방면에 대해 2차 수정하였다.

3. 11월부터 1월까지는 보고서 초고를 작성단계이다. 번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교제 번역 이론 지도하의 한중 문장 번역을 주요 내용으로 번역 대상 소개, 번역 과정, 한중 문장 구조의 차이점과 교제 번역 이론, 사례 분석, 결론 등 5 개 부분으로 나누고 작성하였다.

4. 1월 20일부터 1월말까지 보고서 2차 수정단계이다. 이번 수정은 주요 문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해 수정하고 교제 번역 이론과 사례 출처를 추가하였다. 보고서의 결론도 다시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3. 한중 문장 구조의 차이점과 교제 번역이론**

**3.1 한중 문장 구조의 차이점**

한국어의 문장 구조는 주어- (목적어)-서술어 형의 배열 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문장 성분은 주성분과 부성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술어가 몇 개의 성분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성분의 출현이 좌우된다. 중국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는 (관형)주어-(부사)-동사-(관형)목적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명사끼리 절대 부딪치지 않지만 한국어는 이와 다르게 많이 부딪친다. 즉, 중국어는 명사성 단어 다음에 동사성 단어가 오고, 그 뒤에 다시 명사성 단어가 온다. 그 밖에 중국어는 독립어의 특징을 가지고 한국어는 교착어의 특징을 가진다. 한국어는 중심어 앞에서 여러가지 관형 표현 형식을 갖는데 중국어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문장 대부분이 관형어가 많은 긴 문장이고 중국어의 문장 대부분은 간단하고 매끈한 짧은 문장이다. 한중 문장의 구조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단어의 선택, 문장 구조의 변경 등 면에서 어려움에 부딪쳤다. 본 보고서는 교제 번역 이론을 결부하여 한국어 문장 구조와 중국어 문장 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가지 언어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하고 역문이 목적어 언어의 습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3.2 교제 번역 이론**

뉴마크는 영국 유명한 번역 이론가로서 다른 번역가들의 번역 사상을 분석하고 총결하여 번역 이론, 번역 교육, 번역 언어학, 번역 기교 등 방면에 치밀하고 훌륭한 논술을 제시하였다. 뉴마크는 <번역 문제 탐구>(Approaches to Translation, 1981)에서 문장 장르에 따라 다른 번역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함과 동시에 어의 번역과 교제 번역을 제시하였다. 어의 번역과 교제 번역은 뉴마크 번역 이론의 핵심으로 뉴마크 번역 이론의 가장 중요하고 특색이 있는 부분이다. 교제 번역 이론은 영국 번역 이론가 뉴마크(Peter Newmark)가 제시한 번역 이론 중의 하나로서 번역문이 목적어 독자들에게 가져온 효과가 원문이 원문 독자들에게 가져온 효과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교제 번역 이론의 종점은 원문의 문자를 그대로 복자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의 언어, 문화와 표현 방식에 의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뉴마크는 번역자가 교제 번역하는 중에 원문의 설명과 문맥의 조정, 그리고 저자의 잘못을 수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고정된 독자가 있고 번역자는 어떤 교제 목적에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성한 번역문이 반드시 원문의 국한을 깨야 한다고 하였다. 어의 번역이 원문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교제 번역은 대상 독자들을 가장 중요시하며 이로 인해 교제 번역 이론의 지도하에 작성한 번역문은 조리가 있고 분명하며 자연스럽고 목적어의 문화 환경에 잘 부합된다.

필자는 번역 대상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주로 뉴마크의 “교제 번역 이론”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난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작품은 문화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뉴마크의 텍스트 분류에 따르면 해석기능적 텍스트에 속한다[[2]](#footnote-2). 이런 부류의 텍스트는 독자의 반응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제 번역이론에 치중해야 한다.

교제 번역 이론의 이런 상대 자유로운 특징 때문에 번역자가 문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적당한 단어도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번역 이론으로 한중 문장의 번역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교제 번역 이론에는 직역법, 의역법, 분역법, 합역법, 가역법, 약역법, 순역법, 역순법 등 번역법이 있다. 본 번역 대상을 번역한 과정에 난점은 해결하기 위해 역순법, 분역법, 약역법을 선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4. 사례 분석**

본 보고서가 주요하게 해결하려는 문제는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맞기 위해 원문에서 어떤 문장들의 구조를 바꿔야 할 때 어떻게 교제 번역 이론을 이용하여 중국어 역문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한중 문장 구조의 차이를 토론하고 번역문의 사례를 대조하여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상황에서 분역법이나 약역법 그리고 역순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4.1분역법**

분역법이란 한 문장을 분해 번역하는 방법이다. 분역법은 원문에서 어떤 던어 혹은 어휘를 번역문의 단문이나 종속절로 번역하거나 원문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분해하여 번역문에서 두 개 혹은 두 개이상의 문장으로 번역한 번역법이다. 문장의 원래 구조를 유지한다면 번역문 읽기가 순탄하지 않고 목적어의 표현 습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단어의 뜻을 번역하지 못하면 원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중국어의 작은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다.[[3]](#footnote-3) 본 보고서가 원문에서 구조를 바꿔야 하는 예문은 단어, 문장으로서 교제 이론을 이용하여 분역법에 의해 분석하려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구조 순서는 다르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맞고 원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번역할 때 원문의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원문의 어느 성분을 원래의 구조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인 성분, 종속절, 등위절 등을 번역한다.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다시 조합한다.[[4]](#footnote-4) 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선정된 두 부분에 분역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장이 15 개 나왔는데 그 중 유형별로 5개를 선택하여 분역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사례 분석이다.

**사례1**

원문1.얼마 전 신문에서 술을 무슨 ‘의식’ 행하듯 마시는 한국인의 낯선 술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1술 권하는 사회*)

역문1：不久前，在报纸上读到一位外国人写的的文章，其内容就是关于韩国人把酒当做某种“仪式”来饮的陌生的酒文化。

**분석**: 이 문장은 표면적으로 보면 긴 문장이 아니지만 순역법으로 번역하면“不久前，在新闻中看到饮酒像行某种仪式似的韩国人的陌生的酒文化相关的外国人写的文章”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문장의 성분이 명확하지 않고 역문도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른 번역 방법을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 여기서는 분역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를 찾고 한 긴 문장을 두개 작은 문장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례2**

원문2.한번 마시면 뿌리를 뽑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폭음 문화， 상대방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술을 마셔야만 예의로 인정되는 대작 문화 등 한국인은 지구상 유례 없는 독특한 술 문화를 지니고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1술 권하는 사회*)

역문2：韩国人拥有有史以来最为独特的酒文化，即， 一旦饮酒，就一定要彻底的过瘾的暴饮文化、一定要跟上对方节奏饮酒才会被认为有礼貌的对饮文化。

**분석**: 예1처럼 이 문장의 원문은 구조가 복잡한 긴 문장이고 문장의 중간 부분은 “독특한 술 문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대로 번역하면 역문이 아주 번거로워서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분역법을 택하여 몇 개 작은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사례3**

원문3. 모든 인간이 일상과 일탈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적 의례나 놀이, 축제나 관광과 같은 문화 형태의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p79 왜 “술 문화”인가)*

역문3：通过宗教性礼仪或者游戏、庆典或者旅行等文化形态的研究已经指明这一事实，即，所有人都在反复日常和逸脱这两种不同性质的人生中生活着。

**분석**: 이 문장의 주요 내용은 “...것은 ...통해...밝혀진 사실이다”인데 직역법으로 번역하면 “……是通过……指明的事实”로 번역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은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부합하지만 이 문장 중에 “사실”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아주 많아서 직역법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분역법으로 두 개 작은 문장으로 번역했고 “사실”을 수식하는 관형어를 작은 문장으로 문장의 뒤에 두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부합한다.

**사례4**

원문4. 그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 들은 한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하기 위해，그리고 집단에서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술을 먹는 것 같다며 ‘술 권하는 풍토’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하였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P81술 권하는 사회*)

역문4，大部分韩国男性为了确认为某一个团体的一员，而且仿佛是害怕被集团孤立而饮酒，他对于“劝酒的风俗”提出批判论。

**분석**: 이 문장의 주요 구조는 “그는 ...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하였다”이고 중국어로 번역하면 “他对……提出批判论”로 번역할 수 있다. 이 문장에 대한 번역의 중점은 “술 권하는 풍토”를 수식하는 부분에 대한 번역이다. 직접하게 번역하면 너무 복잡하여 중국인들이 알아볼 수 없으니 분역법을 사용하여 “술 권하는 풍토”의 수식어를 단독적으로 번역하고 문장의 앞에 두고 문장의 주어는 뒤에 두었다. 이렇게 두 개 작은 문장으로 번역하면 역문의 구조는 더 명확하여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례5**

원문5. 한국인들은 서로 만나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나이나 학번 등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과의 서열을 정하는 데 익숙해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163 한국인의 만남의 양상*)

역문5，相互见面的话，通过直接或间接地询问年龄或年级来确定自己和对方的序列，韩国人对于这一点是非常熟悉的。

**분석**: 이 문장의 주요 구조는 “한국이들은 ... 는 데 익숙해 있다.”인데 이 부분의 수식어가 많아서 직역하면 좀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는 데 ”의 수식어를 번역하고 문장의 주어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역문은 중국인의 습관에 부합하고 문장도 자연스럽다.

앞에 분석한 5개 사례는 모두 분역법으로 번역한 문장이다. 원문은 복잡한 긴 문장이 아니지만 한국어 문장의 표현 방식에 의해 주어 앞에 관형어를 많이 부치기 때문에 번역할 때 한국어의 표현 습관만에 따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중국어의 간단 명확한 표현 습과에 어극한다. 그러므로 번역 과정에 분역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를 찾고 문장을 몇 개 짧은 문장으로 나누고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더 잘 부합한다. 앞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분의 문장 주체를 문장의 가장 앞에 두고 뒤에는 주체에 대해 설명하는 표현 방식이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잘 맞춘다.

**4.2 약역법**

약역법이란 원문의 일부 단어 또는 말을 번역하지 않는 수법을 가리킨다. 약역하는 목적은 원문의 사상과 내용을 맹백히 전달하며 역문의 언어 습관과 수사학적 표현 요구에 따라 역문을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데 있다.[[5]](#footnote-5) PeterNewmark 는 원본에서 모두 의미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언어로 번역문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원문의 모든 의미를 다 번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6]](#footnote-6)

여기서 말하는 약역법은 문장 성분의 감소을 가리킨다. 중국어보다 한국어는 더 복잡하고 길다. 한국어 중에 문장 성분이 중복하는 경우도 많는데 중국어는 매끈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거듭한 문장 성분을 성략하게 번역할 필요한다. 이런 때는 약역법을 이용할 수 있다.

번역실천에서 원문의 어떤 성분이 한국어 표현 방식으로 보면 필수한 성분이고 문법 작용에 있어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는데 중국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문에는 그런 성분을 성략하면 안 되지만 번역 과정에서 생략하는데 있다[[7]](#footnote-7). 중국어가 매끈하고 명확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중국어로 번역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 추가한 문장 성분을 생략하고 역문을 보다 간결하게 표달 해야 한다. 원문에서 문장의 문법적 구조의 완전성을 기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번역문에서 그 일부를 뺄 수 있다.[[8]](#footnote-8) 선정된 두 부분에 약역법으로 번역해야 하는 문장이 23 개 나왔는데 그 중 유형별로 10개를 선택하여 약역법으로 분석하였다.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사례6**

원문6,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간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0 술 권하는 사회*)

역문6, 饮酒最主要的原因就是为了缓和人际关系。

**분석**: 이 문장 원문은 작은 문장이지만 거듭하고 복잡하다. 번역 과정에서 “ 가장 큰 이유로는……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를 그대로 번역하면 “最主要的理由就是因为……”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런 역문에서 “最主要的理由”와 “因为”는 서로 거듭하기 때문에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를 성략하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면 원문의 뜻을 변하지 않을 뿐이고 역문은 더 매끈하고 간단하졌다.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더 잘 부합한다.

**사례7**

원문7, 이는 그만큼 한국인의 술 문화가 독특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79 왜 “술 문화”인가*)

역문7, 这可以充分地说韩国人的酒文化是独特的。

**분석**: 이 문장 중의 “이”는 그 앞에 문장의 내용을 가리킨다. 앞에 내용을 보면 이 문장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 수 있고 이 문장 중의 “그만큼”은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할 수 있다. “그만큼”을 생략하더라도 역문 중의 “充分地”는 원문의 뜻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사례8**

원문8, 더 큰 이유는 술 문화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읽을 수 있으며, 그 중 에서도 “한국인의 일탈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79 왜 “술 문화”인가*)

역문8, 更重要的是因为，通过酒文化可以解读现代韩国社会的层面，其中，还可以理解“韩国人的逸脱文化”。

**분석**: “이유는... 기 때문이다”는 한국어 고유의 표현 방식인데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면 “……理由是因为……”번역할 수 있지만 이런 중국어 표현 방식은 정확한 중국어 표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와 ”기 때문이다” 두 개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부합하기 위해 “이유는... 기 때문이다”는 “是因为”로 번역하였다.

**사례9**

원문9,노동과 현실이라는 실존적 정황으로 둘러싸여 있는 삶의 양태, 즉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세계를 일상적인 문화라고 말한다면, 놀이 축제 종교적 의례와 같은 비일상적인 삶의 양태, 즉 매일매일 생활과는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양태가 나타나는 세계를 일탈 문화라 부를 수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79 왜 “술 문화”인가*)

역문9, 以劳动和现实这一实际存在的情况所围绕的生活的形态，即，把每天生活中体验到的生活的世界称之为日常的文化的话，游戏、庆典、宗教性礼仪等非日常的生活形态，即，把可以体验与每天的生活不同的人生形态所出现的世界称为逸脱文化。

**분석**: 이 문장 중의 생각한 문장 성분은 연결사인 “면서”이다.한국의 중의 “면서”는 그대로 번역하면 “……的同时”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문장 중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양태”는 “生活的同时体验到的人生”로 번역하면 거듭하고 중국의 표현 습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면서”를 생략하고 “生活的同时体验到的人生”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중국의 표현 방식에 부합하고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례10**

원문10,음주량이 많은 만큼 한국인의 음주 문화 또한 독특하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0 술 권하는 사회*)

역문10, 如同饮酒量一样，韩国人的饮酒文化也是非常独特的。

**분석**: 앞에서 한국인들의 음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미 언급했는데 이 문장중의 “음주량이 많은 만큼”은 “如同饮酒量很多一样”로 번역하는 것보다 “如同饮酒量一样”로 번역하면 더 명확하고 중국인의 표현 습관에 더 부합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만큼”을 생략하게 “如同饮酒量一样”로 번역하였다.

**사례11**

원문11,일상과 일탈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삶의 양태는 항상 우리 삶 속에 혼재해 있으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셰계를 넘나들며 살고 있는 셈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4 일상과 일탈*)

역문11, 日常和逸脱这两种异质性的生活样态一直存在于我们的生活中，我们穿越这两种世界生活。

**분석**: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인 “셈이다”는 “두가지 세게를 넘나들여 살고 있다”를 가리킨다. 한국어 중에 문장 구조가 완정하기 위해 필수한 성분인데 중국어 중에 “셈이다”와 대응하는 단어를 찾기 어렵고 없더라고 문장이 완변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 악역법을 사용하여 이 성분을 생략하였다.

**사례12**

원문12. 사회가 정해 준 궤도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에겐 그만큼 이탈은 중요하다. 결국 궤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7 낮과 밤*)

역문12, 对于在社会制定好的轨道中生活的韩国人来说，逸脱是很重要的。因为终归还是要回到轨道中。

**분석**: 예10처럼 이 문장 중에 “그만큼”은 국체적인 의미가 없고 중국어로 번역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중국어로 번역했 을때 이 부분을 생략하고 역문에 “很”를 추가하여 역문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사례13**

원문13. 더 큰 이유는 술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 의례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과 유사한 문화 양태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7 음주라는 의례*)

역문13,但是更重要的原因是仔细观察酒席的话，可以看到与宗教礼仪中所呈现的文化现象相似的文化形态。

**분석**: 예8와 비슷하여 이문장도 “이유는 …기 때문이다”인 이 고유한 표현 방식 때문에 번역했을 때 문제가 있다.중국어 표현 방식에 따라 “更重要的原因是”로 번역하고 “…기 때문이다”를 생략하였다. 이렇게 번역해 보면 역문이 더 간렬하고 명확해졌다.

**사례14**

원문14. 물론 우리 나라에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구식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체로 한국인이 즐겨 술을 마시는 술집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마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94 집단 의례로서의 술 문화*)

역문14, 当然，韩国也有受西欧影响的西欧式的酒吧，但是，大体上韩国人享受饮酒的酒馆是人们可以聚集在一起饮酒的构造建造的。

**분석**: 이 문장 중에 “…것이 사실이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없고 문장이 더 완성시키기 위해 부가한 성분이기 때문에 번역했을 때 “…的事实”로 번역하면 역문이 명확하지 않고 중국어 표현 방식에도 부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번역했을 때 이 부분을 생략하여 번역문이 더 정확해졌다.

**사례15**

원문15. 이의 가장 흔한 예는 2-3차 이상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볼 수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172 “정”의 관계를 지향하는 한국의 교류 문화*)

역문15, 这最常见的例子就是2-3次以上的酒桌上。

**분석**: 이 문장은 “가장 흔한 예는 …에서 볼 수 있다.”는 문장구조이다. 중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最常见的例子…在…可以看到”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중국어 표현 방식은 좀 거듭하고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부합하기 위해 “…에서 볼 수 있다”를 생략하게 번역하였다.

앞에 10개 문장은 모두 약역법으로 번역한 사례이다. 한국어 문장 중에 “그만큼”,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기 때문이다”등 표현은 정확한 의미가 없지만 문장 구조의 완정성을 위해 생략하면 안 되는 문장 성분이다.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부합하기 위해 약역법을 사용하여 간단하고 명확한 중국어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4.3 역순법**

문장 서술 순서가 중국어 표현 습관과 다를 때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표현하기 위해 중국어 서술 순서로 원문 순서를 재배열할 수 있고 어떤 단문이나 문장 성분을 우선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역순법이다.

뉴마크는 그의 작품인 『번역이론과 번역기교』에서 전면적으로 논리관계의 적용을 기술하면서 역순법을 제기하였다. 즉 번역할 때 번역문에서 원문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반대한 논리관계로 표달한다는 것이다[[9]](#footnote-9).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 역순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두 부분에 역순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장이 20 개 나왔는데 그 중 유형별로 9개를 선택하여 역순법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은 사례 분석이다.

**사례16**

원문16. 실예로 외국에서 자란 한인 교포 2, 3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등은 일정한 사회나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2 술 버릇과 술 문화*)

역문16：例如，如果观察在外国成长的韩国侨胞2、3代的生活，可以很容易的知道一个人的价值观或生活习惯等是在一定的社会或文化圈中生活的同时形成的。

**분석:** 이 문장 중의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면 “…是非常容易知道的“로 번역할 수 있지만 중국어 표현 방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순서 반대로 번역하고 “…可以很容易地知道…”로 번역하였다. 이런 중국어 표시 방법은 중국인에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중국어 표시 방식에도 부합한다.

**사례17**

원문17.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3세를 만나 술을 마셔 보면 한국식 술 문화보다는 미국식 술 문화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2 술 버릇과 술 문화*)

역문17：实际上，与生活在美国的韩国侨胞2、3代见面喝酒的话，可以看出比起韩国式的酒文化，他们更遵守美国式的酒文化。

**분석**: 이 문장은 예16과 비슷하고 역순법을 사용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번역하고 “…可以看到…”로 번역하였다.

**사례18**

원문18.얼마 전 신문에서 술을 무슨 ‘의식’ 행하듯 마시는 한국인의 낯선 술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1술 권하는 사회*)

역문18：不久前，在报纸上读到一位外国人写的的文章，其内容就是关于韩国人把酒当做某种“仪式”来饮的陌生的酒文化。

**분석**: 이 문장은 앞에서 번역법을 분석했을 때 이미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분역법을 사용할 뿐이고 역순법도 사용하였다. 원문 중에 “…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는 순서 그대로 번역하면 “关于…文章曾经读过…”로 번역해야 한데 이런 중국어 표현 방식은 문장 구조가 틀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중국어 표현 방식에 맞기 위해 순서 반대로 번역하였다. “曾经读过一篇文章，其内容局势关于…”로 번역하였다.

**사례19**

원문19.한번 마시면 뿌리를 뽑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폭음 문화， 상대방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술을 마셔야만 예의로 인정되는 대작 문화 등 한국인은 지구상 유례 없는 독특한 술 문화를 지니고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0술 권하는 사회*)

역문19：韩国人拥有有史以来最为独特的酒文化，即， 一旦饮酒，就一定要彻底的过瘾的暴饮文化、一定要跟上对方节奏饮酒才会被认为有礼貌的对饮文化。

**분석**: 이 문장은 예18과 똑같고 앞에서 이미 분석했는데 분역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역순법도 사용하였다. 문장의 마지막 성분인 “한국인은 지구상 유례 없는 독특한 술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의 주제인데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따라 이 성분을 먼저 번역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번역했을 때 역순법을 사용하여 문장의 순서를 바꿨다.

**사례20**

원문20. 우리 나라 사람에겐 매우 익숙한 모습이지만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겐 매우 생소한 문화 현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87 음주라는 의례*)

역문20：虽然对于韩国人来说是再熟悉不过的场景，但是对于初入韩国的外国人来说无疑是非常陌生的文化现象。

**분석**: 이 문자의 마지막 부분 “…틀림없을 것이다.”는 중국어로 번역하면“…是无疑的” “…是没有错误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역문이 좀 이상하다.중국인의 표현 습관에 따라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이 부분을 앞에서 두어 “…无疑是…”로 번역하였다. 이렇게 번역된 문장은 더 자연스럽고 중국인의 말하는 습관에 더 잘 맞을 수 있다.

**사례21**

원문21. 그 반대로 한편으로는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직업과 "남 따돌리기"의 작업이 은밀히 행해지는 곳 또한 술자리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94 집단 의례로서의 술 문화*)

역문21：从其反面来看，酒桌也是隐秘地实施区分我的人和非我的人的工作和“支开别人”的工作的地方。

**분석**: 문장의 주어는 바로 마지막 부분 “술자리이다”. 그런데 중국어의 문장구조는 “主+谓+宾”이기 때문에 주어는 가장 앞에 두어야 한다. 이 문장을 번역했을 때 원문의 구조를 바꿔야 하고 주어는 역문의 가장 앞에서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역문은 “酒桌是……”로 번역하였다.

**사례22**

원문22 결국 개인의 자아란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일관되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102낮과 밤에 달리 나타나는 “자아”*)

역문22：可以看出，个人的自我不是按照一种固定的样式始终如一地表现出来的，而是根据所见的人或自身所处的社会文化性状况不同地展现出来。

**분석:**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의하면 “…다고 볼 수 있다”는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두면 가장 적당한데 “…可以看出”로 번역하면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이 부분을 앞에 두고 “可以看出…”로 번역하면 가장 적당하고 중국인의 표현 방식에 가장 부합한다.

**사례23**

원문23. 낮 문화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과 밤문화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이 다름을 암시해 주는 말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102낮과 밤에 달리 나타나는 “자아”*)

역문23： 这句话就暗示了，白天文化中所表现的自我的模样和夜晚文化中所表现的自我的模样的不同。

**분석:**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 “암시해 주는 말이다”는 한국어의 고유한 표현 방식인데 “给与暗示的话”로 그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런 중국어 표현 방식은 정확한 표현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번역했을 때 순서 반대로 바꾸고 이 부분을 가장 앞에서 두고 “这句话就暗示了……”로 번역하였다. 이런 표현 방식은 중국어의 표현 방식에 가장 맞고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례24**

원문24 이러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화술을 훈련시키고 상대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반법 등 관계의 테크닉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작가: 국제한국학회 서명: 한국 문화와 한국인 P163 한국인의 만남의 양상*)

역문24：这些程序大部分是与使人减少害羞，或者教给人们可以做好印象管理的方法，或者训练口才，增进对对方的敏感性的方法等关系的功夫开发相关的。

**분석:**  이 문장 중의 “이러한 …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는 그대로 번역하면 “这样的……和……相关的是大部分”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중국어 표현 방식이 어색하기 때문에 중국어 표현 방식에 따라 역순법을 사용하여 “这些程序是与……相关的”로 번역하였다.

상술한 9개 사례는 문장의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 주어를 문장의 가장 뒤에 둔다. “술자리이다”, “암시해 주는 말이다”등 주어로서 원문에서 문장의 가장 뒤에 두었는데 중국어 주어는 문장의 거장 앞에 두이는 표현 방식에 의해 번역할 때 이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 “…다고 볼 수 있다”, “…틀림없을 것이다.”는 한국어 표현 방밥에 따르면 문장의 가장 뒤에 두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중국어로 번역할 때 역순법에 의해 문장의 앞에 두었다.

**5. 결론**

본 번역 실천 보고서의 번역 대상은 한국 여러 대학교의 교수가 연합적으로 작성한 『한국 문화와 한국인』이다. 이 텍스트에 대한 번역을 통해 번역중의 주된 문제가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번역하는 문제이다. 정확한 목적어의 선택, 역문의 문장 순서, 역문의 문장 구성 등 몆 까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마크의 교제 번역 이론 중의 분역법, 약역법, 역순법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문에 문장이 짧지만 복잡하는 문장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하면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겅우에 뉴마크의 교제 번역 이론 중의 분역법을 선택하여 몆개 짧은 문장으로 나누고 중국어의 표현 습관에 부합하는 역문을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의 4.1분역법 부분에서 사례를 열거하여 분석한다.

한국어에서 문장의 완전성을 위해 중복하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성분이 많는데 중국어로 번역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번역 문제 중에 하나이다. 자료를 찾아 보고 뉴마크의 교제 번역 이론 중의 약역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보고서의 4.2약역법 부분에서 사례를 열거하여 분석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문장 구조가 다르고 한국어 문장 중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주체를 뒤에 두는 경우도 많다. 본 보고서의 4.3역순법 부분에서 사례를 열거하고 뉴마크의 교제 번역 이론 중의 역순법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즘 한류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이 많아져서 이 번역문은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이 한국 문화의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고 차이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화하고 문화교류를 촉진할 수 있다.

이상은 필자의 번역 과정의 소감이다. 이 보고서는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는데 앞으로 번역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문화 관련 텍스트의 번역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한국어 자료:**

**단행본:**

[1] 장의원, 김일, 『중한 번역 교본』, 연변대학출판사, 2003

[2] 최정화, 『통역번역입문』, 신론사, 2004

**논문:**

[1] 이운락, 「中韩翻译研究」，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5

**중국어 자료:**

**단행본:**

[1]何刚强, 笔译理论与技巧[M]，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9

[2]李龙海、李承梅，《韩汉翻译教程》[M]，上海外语教育出版社，2009

[3]李建军，《文化翻译论》[M]，复旦大学出版社，2010

[4]刘宓庆, 《文体与翻译(第二版)》[M]，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 2012

[5]王菊全, 《什么是对比语言学》[M]， 上海外语教育出版社， 2011

**논문:**

[1]蔡萍，《纽马克翻译理论浅析》[J]，电子科技大学学报, 2009年第3期

[2]陈艳平，《中韩小说语篇逻辑衔接关系比较研究》[J]，语文学刊，2014年第14期

[4]刘国辉、戴婷婷，《从认知关联角度研究逻辑连接词的语篇连贯》[J]，外国语言文学研究， 2003年第4期

[5]刘金龙，《纽马克翻译理论在译诗中的适应性和审美再现》[J]，鹭江职业大学学报，2004年6月第21期

[7]谭克新，《演讲文体特征及其翻译策略——以马丁·路德·金<我有一个梦>为例》[C]， 第十四届全国科技翻译研讨会论文汇编， 2011

[8]万正发，《英汉翻译逻辑连接的转换规律探究》[J]，河北北方学院学报，2011年第3期

[10] 王璇子，《功能对等视角下的英语长句翻译—以<英格兰东部游记>的翻译为例》[D]，南京大学硕士学位论文，2014

[11]温鑫，《彼得·纽马克的翻译理论在不同类型文本中的应用》[J]， 太原城市职业技术学院学报，2010年第8期

**인사말**

이번 번역실천과 번역 실천 보고서를 마무리 완성했습니다. 우선 제 지도 교수님 우영란 교수님께 진지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문 텍스트 선정, 번역문 수정 및 이 본고서 작성등 과정에서 우영란 교수님의 아낌없는 도움과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우영란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번역이론에 관한 자료들이 이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번역문은 같은 반 친구와의 몇 차례 토론을 거쳐 완성하였습니다. 항상 필자를 격려해 주고 도와 준 친구와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학원 입학 시절부터 여러 방면에 도움을 주신 외국어 학과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통해 필자는 지식뿐만 아니라 학술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애를 쓰고 노고를 기울이신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록 A원문**

**한국 문화와 한국인 술 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일상과 일탈**

**왜 “술 문화”인가?**

얼마 전 한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한 외국인에게 한국문화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낯선지를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술 문화”였다. 。 한국인에게는 가장 익숙한 문화인 술 문화가 외국인에게 가장 낯설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는 그만큼 한국인의 술 문화가 독특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 가운데 굳이 술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단지 한국인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술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이유는 술 문화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읽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일탈 문화”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과 현실이라는 실존적 정황으로 둘러싸여 있는 삶의 양태, 즉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세계를 일상적인 문화라고 말한다면, 놀이 축제 종교적 의례와 같은 비일상적인 삶의 양태, 즉 매일매일 생활과는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양태가 나타나는 세계를 일탈 문화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인간이 일상과 일탈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종교적 의례나 놀이, 축제나 관광과 같은 문화 형태의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이 글에서 한국인의 술 문화를 통해 한국 문화의 일탈성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첫째 종교적 의례나 놀이와 같은 일탈의 문화 현상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의미나 특성을 한국인의 술 문화 속에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으며, 둘째 일상성을 통해 본 한국인의 문화와 일탈성을 통해 본 그 모습이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성의 문화와 더불어 일탈성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술 권하는 사회**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1997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 음주 인구 1명당 소주 120병, 맥주 204병, 위스키 1병, 막걸리 12통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지지 않을 음주량이다. ‘최근 발간된 <한국 사람들>이란 책을 보면, 1995년에 우리 나라 성인 남자는 한 달에 평균 열두 번, 여자는 여섯 번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주종은 맥주, 소주, 위스키, 청주 순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더 있다.모 그룹에서 최근에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달 술값과 책값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한 달 술값이 책값의 열 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고， 술 자리를 1차로 끝내는 사람은 1/3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는 2-3차까지 간다고 답했다. ‘술 친구’로는 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장 동료， 가족， 업무상 고객 순이었으며，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큰 비율은 차지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간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량이 많은 만큼 한국인의 음주 문화 또한 독특하다. 한번 마시면 뿌리를 뽑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폭음 문화， 상대방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술을 마셔야만 예의로 인정되는 대작 문화 등 한국인은 지구상 유례 없는 독특한 술 문화를 지니고 있다.한국인의 음주벽이 이 정도이고 보니 신문 지상에는 정기적으로 술 문화 비판론이 실리거나， 연말이 되면 술을 요령 있게 마시는 방법에 관한 기사까지 나곤 한다. 이 점 또한 특이한 문화 현상이다. 주요 도로를 경찰이 점령하고 음주 측정을 하지만 좀처럼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다.。

얼마 전 신문에서 술을 무슨 ‘의식’ 행하듯 마시는 한국인의 낯선 술

문화에 대한 한 외국인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 남성 들은 한 집단의 일원임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집단에서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술을 먹는 것 같다며 ‘술 권하는 풍토’에 대해 비판론을 제기했다. 이 정도이고 보면 우리는 술을 마시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술 권하

는 사회’의 술 문화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술 버릇과 술 문화**

먼저 한국인의 술 문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술 버릇’과 ‘술 문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술 버릇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 술을 마시는 방식이나 태도를 일컫는 반면， 술 문화란 말에는 일정한 사회나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생활 양식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그 사람 술 버릇이 아주 고약하다”라고 말할 때는 한 개인의 술 마시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1차에서 끝내는 법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집단적인 술 문화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한국 땅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살아가기란 정말 힘들다고들 하는데，이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짜여진 사회·문화적 풍토 때문이다. 문화란 집단 구성원끼리 공유한다는 특정이 있는데， 집단성 또는 집단 문화가 강한 한국문화에서는 더욱 실감나는 말이다.

한국인의 술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화’(encultu-ration), 사회화(socialization)란 관점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술 문화는 단순히 한국인의 체질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의해 독특한 술 문화가 만들어지고 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체로 한 사회나 문화권에서 태어나 생활한 사람들은 문화화，사회화란 과정을 통해 비슷한 문화를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독특한 한국문화를 갖게 되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나름대로 미국문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실예로 외국에서 자란 한인 교포 2, 3세들의 생활을 살펴보면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등은 일정한 사회나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한인 교포 2, 3세들은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지만.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술 문화도 예외는 아니다.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2,3세를 만나 술을 마셔 보면 한국식 술 문화보다는 미국식 술 문화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의 특성 가운데 또 한 가지 홍미로운 것은 이른바 문화의 ‘지속성’이다. 문화는 하루 아침에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계속성을 지닌다는 것인데， 술 문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도 수긍이 가는 말이다. 흔히들 요즘 젊은이들의 술 문화가 예전과 달리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술 문화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술의 종류나 술집의 구조 등은 바뀌지만 앞으로 살펴볼 한국인의 술 문화의 기본적인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인류학과 술 문확**

한국인의 술 문화는 좋고 나쁘고의 여부를 떠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이다. 한국인의 술 문화를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윤리적인 시각과 문화 상대론적인 시각을 꼽을 수 있다. 윤리적인 시각이란 “한국인의 술 문화， 이래도 좋은가"라는 식으로 윤리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술 문화의 유해성， 개인이나 사회적인 악영향 등을 논하는 입장이다. 윤리적인 시각은 술 문화를 통제하고 올바른 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지만 술 문화 나름의 문화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술 문화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바로 문화인류학자들이 학문적 방법론으로 삼고 있는 ‘문화 상대론’적 입장인데， 이는 한 문화나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잣대로 다른 문화를 판단하는 자기 문화 중심적인 시각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한다. 문화란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치우치지 않는 문화 나름의 읽기 작업을 통해서만 그 문화적 의미와 모습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일상과 일탈**

인간은 두 가지 실존적 삶의 양태， 즉 일상과 일탈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을 돌아보면 쉽게 납득이 가는 말이다.

먼저 하루의 생활을 살펴보면， 노동의 현장에 있는 시간을 일상의 시간， 노동의 현장을 벗어난 놀이나 여가의 시간을 일탈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낮에 일터에 있게 되므로 낮 동안이 일상의 시간이 되고 밤은 일탈의 시간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1주일을 단위로 생각한다면， 보통 주중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이 되고 여가와 놀이를 즐기는 주말은 일탈의 시간이 된다. 일요일마다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종교적으로 일상과 일탈의 시간은 보다 확연히 구분된다. 즉 주중은 세속적인 삶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일상의 시간이고， 주말 또는 주일은 종교적인 시간으로 규정될 수 있는 일탈의 시간이다. 만약 영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극장은 일탈의 공간이며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고 있는 시간은 일탈의 시간이다. 여행이나 관광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여행을 떠나 있는 시간은 일탈의 시간이 되고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여행을 갔다 온 후의 시간은 일상의 시간이 된다.

이처럼 놀이， 스포츠， 여행， 관광， 여가 생활， 종교적 의례. 축제와 같이 일탈 문화는 우리 생활과 함께 붙어 있다. 일상과 일탈이라는 두 가지 이질적인 삶의 양태는 항상 우리 삶 속에 혼재해 있으며, 우리는 이 두 가지 셰계를 넘나들며 살고 있는 셈이다.

**성과 속**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종교인류학자 머시아 엘리아데(Mircia Eliade)는 일상과 일탈이라는 두 가지 삶의 실존적 정황을 ‘속’(俗profane)과 정’(聖, sacred)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설명하였다. 원래 엘리아데는 종교와 비종교를 구분짓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성’은 ‘속’의 반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이라고 표현된 삶의 범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을 종교라고 보았다. 엘리아데의 이론에 따르면， 종교적인 인간에게는 ‘성’의 시간과 ‘속’의 시간은 서로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공간 또한 성스러운 공간과 속의 공간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절이나 교회 안에 있는 시간과 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시간은 이질적이며， 절이나 교회 안의 공간과 절이나 교회 밖의 공간 또한 이질적이다. 물론 엘리아데는 종교의 속성을 밝히기 위해 ‘성’과 ‘속’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것이지만， 그의 문화 이론은 종교 현상을 비롯해서 축제·놀이 ·관광 그리고 한국인의 술 문화와 같은 문화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은 종교적인 시간과 세속적인 시간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듯 일상과 축제의 시간， 노동과 여가 및 놀이의 시간， 일상사로 가득 찬 삶의 시간과 여행의 시간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엘리아데는 이런 인간 삶의 구조를 “변증법적인 삶의 구조”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일상과 일탈의 시간을 변증법적으로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낮과 밤**

술은 주로 밤에 마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이라는 시간이 갖는 상징성이다. 간단히 말해서 낮은 노동의 시간 혹은 일터에 있는 시간이며， 밤은 일터를 벗어난 놀이의 시간 혹은 여가의 시간이다. 즉 낮은 일상의 시간이며 밤은 일탈의 시간인 것이다. 일상의 시간을 "속"(俗)의 시간이라 부르고 일탈의 시간을 ‘성’(聖)스러운 시간이라고 말한 엘리아데의 도식을 따르자면, 낮은 ‘속’의 시간이며 밤은 ‘성’의 시간이 된다. 술 문화를 일탈의 문화와 관련시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술은 일탈의 시간에 소비되는 음식이며 술집은 일터와 구분되는 일탈의 공간이다. 일터와 술집이 질적으로 구분되듯， 낮 시간과 밤 시간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곤 사람들은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학생의 경우는 학교) 밤에는 일터를 벗어나 자유로운 여가의 시간을 즐긴다. 사람에 따라서 노동의 시간이 길고 여가의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지만， 노동-여가라는 삶의 구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에게 밤의 문화， 일탈의 문화, 술 문화는 서로 동의어처럼 쓰일 수 있다. 물론 밤의 문화에 술 문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술 문화가 일탈 문화를 모두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추 이야기해서 세 가지 문화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밤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노동의 시간으로 돌아간다. 앞에서 사람들은 밤마다 일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여기서 일탈이란 영원히 일상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밤이 갖는 일탈의 시간이란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일 뿐이다. 하지만 일탈의 시간은 중요하다. 일탈의 시간이 일상이라는 삶의 굴레 속에 잠시 얼굴을 비출 정도로 짧은 만큼 일탈의 시간은 중요하다. 밤이 갖는 일탈의 묘미는 낮의 문화라는 연속극 속에 끼어들어 밤의 문화가 연출하는 막간극의 문화적 현상을 즐기는 데 있다. 한국인들이 술 문화를 그토록 즐기는 것은 일터 문화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낮의 문화와는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막간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 밤 문화의 막간극에서는 카오스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카오스 세계가 주는 역동성과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한 시인은 ‘술은 퀘도 이탈을 위해 마신다”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일상의 이탈을 위해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한국인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잘 설명한 말이라 할 수 있다.사회가 정해 준 궤도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에겐 그만큼 이탈은 중요하다. 결국 궤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음주라는 의례**

한국 사람들은 밤마다 음주라는 의례를 치른다. 여기서 ‘의례’라는 말을 쓴 것은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른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매일 밤 술집에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이 마치 종교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종교 의례를 치르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술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 의례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과 유사한 문화 양태를 목격할수 있기 때문이다. 밤마다 열리는 음주 의례 현장은 누구나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에겐 매우 익숙한 모습이지만 처음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겐 매우 생소한 문화 현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 가운데 가장 샃선 문화를 꼽으라고 하면 그들은 술 문화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밤마다 음주라는 의례를 치르는 걸까? 이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의례의 구조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문화인류학자 반 게넵(Van Gennep)이 제시한 "통과의례"(rite of passage)의 개념과 빅터 터너(Victor Turner)의 ‘리미노이드’(liminoid)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 게넵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생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의 사회적 지위 또는 상징적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옮겨 가며. 이러한 상태의 변천은 일정한 의례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확인된다고 한다.

반 게넵은 이러한 의례(성인식， 결혼식， 장례식)를 ‘통과의례’라 부르고， 통과의례는 격리(separation), 과도기(transition)，통합(incomoration)이라는 세 단계의 구조를 갖는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볼 수 았는 성인식을 예로 들면， 누구나성인의 나이가 되면 이제껏 살아왔던 유년 시절의 또래 집단에서 격리된 후(격리).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기거하면서 부족의 신화나 성인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지식 등을 배우면서 지내는데， 이 때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과도기적인 상태로 지낸다(과도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상태와 정쳬성(正體性)의 획득을 상징하는 통합의 의례를 거친 후 성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 들어온다(통합).

집단적인 음주 행위를 반 게넵의 이론 틀에 대입시켜 보면 홍미로운 술 문화의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음주의 시간과 음주 전·후의 시간을 구분해 보면， 술을 마시기 전의 시간-술을 마시는 시간-술을 마신 후의 시간이라는 세 가지의 이질적인 시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시간은 노동의 시간에서 벗어나 일탈의 시간으로 떠나는 여행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격리"의 시간과， 노동의 공간과는 다른 장소에서 색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과도기"적인 시간，그리고 가정이나 노동의 공간으로 되돌아오는 ‘통합’의 시간이라는 구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술집이라는 공간 또한 직장-술집-(집)-직장이라는 세 가지 구조로 이해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신다·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혼히 술은 술집에서 마셔야 제맛이 난다고 말하는 것도 술집이라는 공간이 지닌 문화적인 상징성 때문이다· 직장은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놓여 있는 통제된 우주이며， 집은 친족과 혈연으로 묶여 있어 상하 서열이 정해져 있는 닫힌 공간인 데 반해， 술집이라는 공간은 질서보다는 혼란과 일탈성， 유동성과 불완전성으로 가득 찬 통제되지 않는 우주이다. 결국사람들은일탈성의 문화가지배하는술판에서 일탈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술 문화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례 행위의 구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기에 해당하는 과도기， 즉 음주의 시간， 술판의 공간이다.

**한국인과 집단 문화**

3월 초 모 대학. 정문을 지나자 커다란 게시판이 눈에 띈다. 게시판에는 각종 모임을 알리는 벽보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단과대학 신입생 환영회. ○○고둥학교 동문 신입생 환영회. ○○서클신입생 환영회·……족히 50개는 넘는 듯하다. 그 날 저녁 느지막이 학교를 나와 학교 주변을 가득 메운 술집을 지나는데 학생들의 함성 소리와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술집 안에 들어가 보니 ○○서클 신입생 신고식이 진행되고 있다. 신입생들이 한 잔씩 술을 마실 때마다 여기저기서 환성과 박수 소리가 들려 온다.

한국인은 집단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씨족 사회에서 비롯된 혈연 중심 문화는 혈연， 지연이라는 사회 조직 원리를 낳았다. 오늘날에 이르러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혈연이나 지연 중심 문화와 더불어 현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 일컬어지는 학연이라는 또 하나의사회 조직 원리가 나타났다. 혈연 및 지연과 학연의 차이점은 혈연이나 지연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학연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타고난 혈통에 의한 가문，출신이 중시되었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가문의 중요성은 약화되고 교육 기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같은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동문이나 동창이라는 조직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지만 혈연이나 지연 그리고 학연에 비해 맹목성과 강제성이 약하다.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연이든 모두 집단성이 중요시된다. 그래서 혼히 한국에는 집단 문화가 발달되었고 한국인은 집단성을 중시한다고 말하는 데 상당한 일리가 있다. 사회 조직 및 인간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문화가 지닌 독특성으로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긴 나이에 따른 서열 의식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인들은 서로 만나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나이나 학번 등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과의 서열을 정하는 데 익숙해 있다. 먼저 어느 정도의 서열을 정하고 난 뒤 행동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나이에 따른 서열 의식과 지연， 학연 중심 문화에서 태어난 것이 선후배 문화이다. 물론 선후배라는 사회 조직 원리는 동향 선후배나 학교 선후배뿐 아니라 직장 선후배， 군대 선후배 등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퍼져 있지만 지역 선후배나 학교 선후배가 다른 선후배 관계보다 조직력이 강하다. 매년 3월이면 대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치러지는 신입생 환영회 및 동문회의 모습을 지켜보노라면 한국인들은 자신과 타자를 얽어묶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학연이란 혈연이나 지연과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사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단 의례를 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름 아닌 술이다.

**집단 의례로서의 술 문화**

한국인은 매일 밤 여기저기서 음주라는 집단적 의례를 치른다。한국에서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으레 ‘술을 마신다’ 함은 누구와 함께 마신다는 것을 의미한다.우리 나라의 술집과 서구의 바(bar)를 비교해 보면 우리 나라의 술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술집 구조는 서양에서 혼히 볼 수 있는 바의 구조와 다르다. 바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 나라의 술집 구조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우리 나라메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서구식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체로 한국인이 즐겨 술을 마시는 술집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마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집단 의례로서의 술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회식 문화이다.회식(會食)이란 말 그대로 여럿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 모임이지만,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음식 섭취의 행사라기보다는 "집단 만들기"나 "집단성 키우기"를 위한 의례로서의 의미가 크다. 따라서 직장의 희식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가 반강제적으로 기대되고， 술이 없는 회식 자리는 상상하기 힘들다. 때로 집단성의 창출 및 유지를 위해서는 맹목성과 강제성이 요구되는데， 낮의 문화， 즉 노동의 문화에서는 합리성·이성·개인의 역량을 중시하기 때문에 맹목성이 요구되는집단성을 키우기에는 적합한 시간이 아니며，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되는 밤 문화， 코뮤니타스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술 문화가 결속력을 다지고 집단성을 키우기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술자리가 단순히 "내 집단 만들기"나 "내 사람 만들기’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한편으로는 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짓는 직업과 "남 따돌리기"의 작업이 은밀히 행해지는 곳 또한 술자리이다. 술을 마시면서 남의 흉을 보거나 헐뜯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라면 이러한 술자리의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마시면 다른 사람이 따라 주고 서로 잔을 부딪치며 술을 마시는 ‘대작’(對酌) 문화나 ‘술잔 돌리기’ 문화 또한 집단적인 문화와 관계가 있다. 대작 문화， 술잔 돌리기 문화가 있는 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술잔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 술을 즐기는 서구인의 술 문화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개인성에 기초한 서구인의 문화와 집단성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오늘도 함께 무너지고 싶다”라는 섬뜩하리만큼 한국문화를 잘 표현한 한 술 광고는 한국인의 술 문화와 집단적인 정서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술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잔을 비워야만 하는 ‘원 샷’(one shot) 문화， 옆 사람이 잔을 비우고 나면 바로 옆 사람이 이어서 마셔야 하는 ‘파도타기’ 놀이와 같은 기발한 술 문화는 집단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성의 표현이라 하겠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상당량의 술을 마시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적은 것도 술을 함께 마시는 집단적 술 문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은 혼자 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는 단순히 술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을 통해 집단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와 바교하여 마약 문화가 적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적인 흥분과 환각을 경험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문화의 산물인 현대 마약 문화는 집단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술 문화 가운데 또 한 가지 홍미로운 것은 한 장소에서 술자리을 끝내지 않고 몇 번씩 자리를 옮겨다니며 파김치가 될 때까지 마시는 ‘차’(次) 문화다. "차수"가 거듭될수록 술은 취해 가고 밤의 문화는 심화되며 집단적인 의례의 농도는 깊어 간다. 계속 장소를 옮겨 감에 따라 초기 술자리의 구성원들 중 남을 사람은 남고 빠질 사람은 떠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탈자가 없도록 구성원들 모두 신경을 쓴다. 누구나 집단적인 의례를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술자리를 떠날 때에도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결국 몇 차를 거듭함에 따라 초기 구성원보다는 사람의 수가 훨씬 줄어들고 결국 끈질기게 남은 몇몇 사람들만 끝까지 술자리를 지킨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술자리를 바꿈으로써 ‘우리’ 사람이 아닌 사람을 따돌리기도 한다. 끝까지 남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서로 초기의 집단보다 더욱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패로서 밤의 문화， 밤의 의례에 동참하는 것이다. 끝까지 술자리를 같이한 사람들끼리는 마치 어려운 일을 함께 수행한 듯 동지가 된다. "음식을 함께 먹는다" 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도처럼 신분 제도가 엄격한 사회에서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같은 자리에서 응식을 먹을 수 없게 사회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 우리 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성별(남자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거나)， 연령(어른과 아이의 밥상을 따로 마련하거나), 신분(사회적 신분에 따라 음식을 따로 먹는 것)에 따라 밥상을 달리하였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암시하 듯 밥상에도 서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음식물을 둘러싼 사회적인 제약은 거의 없어졌지만, 사람들끼리 음식을 함께 먹거나 술을 같이 마신다는 것은 물리적인 차원을 떠나 사회적인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상대방에게 "언제 식사나 하지"라고 말하거나 "술이나 한 잔 하지"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음식이나 술을 함께 나눈다는 생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술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음식을 함께 먹는 것보다 문화적인 상징성이 더욱 강하다. 주로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기존의 관계를 지속하거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술을 함께 마시는 것은 기존 관계의 지속뿐 아니라 관계의 심화 내지 전환을 위한 기능을 수반할 때가 많다.

술자리라는 시간과 공간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성(聖)의 시간， 불안정한 리미노이드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를 깨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좋은 기회의 장(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코뮤니타스라는 정서로 대표되는 이 리미노이드의 시간에서는 서로 차별하기보다는 동화되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 관계를 맺기 좋은 시간이라 말할 수 있다. 한국인은 술과 술자리가 지닌 문화적 상징성을 사회적으로 이용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낮과 밤에 달리 나타나는 ‘자아’**

사람은 하나의 자아(自我, self)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을까?대체로 예전의 인류학적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자아는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보고 고정된 자아의 탐구에 몰두해 왔지만， 요즈음 들어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자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상황이나 관계성에 따른 자아의 변화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결국 개인의 자아란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일관되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모습이 직장 상사를 대할 때와 부하 직원을 대할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자아가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는가를 통해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도 한다. 낮 문화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과 밤문화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모습이 다름을 암시해 주는 말이다. 。그녀에 따르면 디오니소스형의 인간은 일상 생활의 단조로운 반복으로부터 도피해서 어떤 황홀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반면 ， 아폴로형의 인간은 그런 경험을 불신하고 오히려 질서정연한 일상 생활을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베네딕트의 두 가지 인간형은 집단적인 "이상적(理想的)퍼스낼리티"에 대한 설명이며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인의 술 문화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베네딕트의 아폴로형의 인간은 유교적인 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낮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인의 모습인 반면， 디오니소스적인 인간형은 밤 문화에서 발견되는 한국인의 퍼스낼리티라 할 수 있다. 물론 술을 마셔도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만, 집단적인 술 문화를 들여다보면 확실히 디오니소스적인 퍼스낼리티가 집단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폭탄주， 원 샷， 러브 샷(마시는 술의 양으로서 상대방의 애정이나 우정 등을 가늠하는 음주 형태)과 파도타기 술 문화는 짧은 시간 내에 함께 디오니소스적인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생겨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술자리에서는 으레 디오니소스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은 뒤 사람이 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묵인하기도 한다.

**교류 행위를 통해 본 한국인의 사회심리**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볼 수 있는 혼한 광경이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홍미로운 차이점이 있다면 돈을 지불하는 행위이다. 한국에서는 일행들이 서로 내겠다고 앞다투다 결국 누군가가 전쳬의 음식 값을 계산하는 반면에서는 계산서를 받고서 각자가 먹은 음식 값과 세금을 계산하느라고 부잔을 피운다. 。한국인이 미국인의 이런 행위를 의아해하듯 미국인 또한 한국인의 행위를 의아해한다. 이 같은 사례는 문화의 차이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면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사회 생활을 한다. 이러한 교류를 눈여겨 관찰해 온 사람들은 한국인의 다양한 행위 양상을 들어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서로 일정한 관련은 있겠지만， 제시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심지어는 모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한국인의 교류 특성이라 여겨지는 쳬면 세우기， 눈치 보기， 핑계 대기 및 다양한 심정(정 또는 한)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행위들로부터 한국인의 심성을 유추하여 한국인은 집단주의적이라고 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개인주의 또한 강하다고 한다. 한국인은표리 부동하다는 주장들은 한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전래의 믿음과 대립되기도 한다.

필자들은 이 같은 여러 주장들을 문화비교적인 관점을 취해 꿰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어느 한 문화의 성원들이 보여 주는 다양한 행위 양상으로부터 그 문화의 특성을 끌어 내는 작업은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훨씬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특성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대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특징은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만남의 관계란 지속성을 지닌 가족， 친구， 동료 및 상하 관계를 말한다.한국인의 만남의 양상

사람들은 주로 누구와 친해지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 모두와 친한 관계를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다. 。한 번 만난 사람들이 계속 관계를 진행시키는지， 그 관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누구와 주로 친해지며, 만나서 주로 무엇을 하는가에 있어서 문화권별로 흥미있는 차이가 관찰되고 있다. 친교 관계의 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당사자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매력 따위의 개인적인 요소와 둘 사이의 연고라고 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친교 관계의 성립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은 개인의 능력， 매력， 화술 따위이다. 사람들 간의 교제는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쉽다.상대가 매력적이거나 유능하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 경우， 상대에 호감을 지니고 접근하며, 이러한 인상을 주고받으며 친소 관계가 진행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이 사귀어 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으며, 초면의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도록 교육받는다. 이러한 탓에 미국인들은 상대가 누구이건 가볍게 접근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쌓아 간다. 미국의 중소도시에서 공원을 거닐에 본 한국인들은， 건너편에서 오는 사람이 건네는 인사말이나 미소에 익숙하지 않아서 상대가 자신에게 특별한 호감을 지니고 있어서 그러나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외모， 성격. 자질 등 비교적 외형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열등한 사람의 경우 대인 관계에 큰 도움을 느끼므로 대인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화술을 훈련시키고 상대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반법 등 관계의 테크닉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서양에서 발달한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주제로 인상 평가와 그의 관리에 대한 것이 일찍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계 맺음은 당사자들의 작위적인 노력이나 매력보다는 연줄과 인연에 의해 많은 영항을 받는다. 예부터 농경사회로 정착 생활을 해 온 우리 민족은 마을 밖의 사람들과 우호적인 만남을 가질 기회가 적었으며， 거의 모든 만남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이었다. 따라서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 양식 대신에 같은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양식이 발달하였다. 이 같은 오랜 문화적 자취가 오늘날과 같은 산업 사회에도 나타나고 있어， 두 사람이 동향 또는 동창이거나 같온 동네에 거주한다든가 하는 점들이 관계의 지속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요소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서로의 만남을 더욱 반갑게 여기고 인연이란 표현을 자주 쓴다. 이 같은 경향성은 우리 사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뇐 사랑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첫 대면의 경우향상 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행위를 보인다. 학연， 혈연， 지연 등에 의한 인맥 동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이에 성공했을 때 관계는 보다 순조롭게 진전된다.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는 한국 사회에서 아는 사이(우리)와 모르는 사이(남)의 교류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타인을 ‘우리’ 또는 ‘그들’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중립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경쟁적이거나 부정적 감정이 연루된 타인으로 간주되는 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를 아는 사이로 전환시키려 한다. 아는 사이 에서는 양방이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정감을 느끼는 관계로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아는 사이와 모르는 사이에 대하여 각기 다른 행동 규범을 지니고 있다. 그 좋은 예는 응식점에서 주문은 따로 하지만 한가운데 놓고 같이 덜어 먹으며， 계산도 각자 먹은 만큼 나누어 내기보다는 어느 한두 사람이 모든 계산을 하는 행태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여럿이 어울려 노는 경우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대화를 하기보다는 전체가 둘러앉아 노래하며 즐기는 행태도 그 예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대인 관계는 그냥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연고에 의해서 연결되는 내(內)집단 성원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단절되는 관계가 아니라. 연줄로 연결되는 공통의 생활 공간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정’이라는 심적 자원을 주고받으며 정을 쌓아 가는 교류이다. 무엇 때문에 만나는가 - 관계의 심리학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생활한다. 일 때문에 또는 놀기 위해서 만나고， 보고 싶거나 궁금해서도 만난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만나지만， 이 점에서도 홍미있는 문화 차이가 나타난다.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의 만남은 즐거움이나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독자적인 존재로서 서로가 교류해 볼 만한지를 부지런히 탐색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기호나 성격， 의견 등을 상대에게 알리는 자기 노출을 하게 된다. 만남의 지속 여부는 이 같은 상호 노출의 결과 상대방에 대하여 느끼는 매력， 호감 및 관계의 유익성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의 만남은 정서적 유대감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나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보다는 내집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줄을 지니거나， 그러한 연줄에 의해 연결되는 만남이므로 관계가 출발부터 어느 정도는 지속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쌍방은 관계의 틀 속에서 상대방을 수용하고 스스로 배척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관계에서 자기 노출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깊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자기 노출은 만남의 분위기를 상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수용될 수 있는 것에 국한해서 이루어지며， 특히 상대가 싫어하는 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토론에 의해 의견 대립을 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부담 없는 주제를 논하거나， 우스개 이야기 또는 놀이를 통해 만남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자 노력한다. 가십성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도 두 사람의 입장이 대립되거나 논쟁이 붙게 되면 ‘‘그런 이야기 그만두자’’며 화제를 바꾸는 일이 흔하다. 고스톱과 노래방이 오늘날 국민적 오락이 된 데에는 이 같은 토론 문화의 기피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고 여겨진다. 심지어 대학의 강의실에서도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의견 대립을 통하여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꺼리는 심리 때문이다. 모임과 만남에서 상대를 평가할 때 우리는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가보다는 나쁜 점이 얼마나 적은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이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나름의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다. 인간 관계를 심리적으로 분석하면 역할의 관계와 정(情)의 관계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역할의 관계란， 두 사람이 뚜렷한 역할을 지니고 특정의 목적(의식하건 못 하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관계이다. 사회는 이 관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다양한 규범과 그에 따른 언행 수칙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명하복이라는 규범을 들 수 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하고 아랫사람은 이를 수용하는 규범으로서 상하의 관계가 구분되면 적용되므로 사안마다 일일이 이치를 따지는 소모적인 행위를 피할 수 있다.

**“정”의 관계를 지향하는 한국의 교류 문화**

정은 한국인의 가족 관계를 기본 틀로 하며 가족 관계에서 가장 강하다. 정은 뚜렷한 목적 없이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며， 정의 깊이는 상대방과 얼마나 한 가족 같은 행동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그룻에 수저를 같이 담그고， 뚜렷한 목적 없이도 같이 빈둥거리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목욕을 같이하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흉허물없이 터놓고 지내는 사람과 정이 든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가더라도 계산된 행위，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행위， 고마움과 미안한[恩〕 마음이 들지 않게 상호 독립적인 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정은 들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정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족 같은 ‘우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무슨 일을 조건부로 하거나 따져서 하는 일이 적어야 한다. 상대의 마음 속에 나를 가족처럼 아껴 주는 마음이 있다고 느낄 때 상대에 대한 정이 우러난다. 이렇게 생긴 정은 다시 상대를 아껴주는 마음으로 전해지면서 정든 관계로 발전한다. 당사자들은 정의 깊이를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일상 생활의 구체적 사건들에서 상대에 대하여 고마움， 미안함， 따뜻함， 가까움 등과 같은 정서를 경험하면서 반추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농촌 사회에서의 교류 양상을 분석한 연구(김주희. r품앗이와 정의 인간관계』， 집문당. 1993)는 인간 관계에서 ‘정을 주는 사이’와 정을 주지 않는 사이’를 구별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이고 있다. 정을 주는 사이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정표가 다양하며 빈도도 잦고， 동기도 순수하게 여기고 부담도 덜 갖는다. 또한 도움을 받을 때 고마움을 크게 느끼며 못 받을 때의 섭섭함도 크다. 아울러 도움을 베풀 때 보람도 크게 느끼고, 못 베풀 때 미안함도 크다. 정든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도움이 역할 탓으로 나올 수 있는데도 이를 정 때문에 나온 것으로 여기는 경항이 있다. 예를 들어 제사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돕는 것은 역할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를 정 때문에 돕는 것으로 여기고 이 같은 인식이 둘 사이의 정분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움 행위는 당연하다는 점과 의도성이 약하다는 면에서 친절한 행위와 구별되며， 관계의 당사자에게 국한된다는 점에서 보편성 및 가치 지향성이 없다. 아울러 보편적 규범에 따른 책임과 의무성을 지니지 않는 점에서는 자비심에 바탕한 행위와도 구별된다. 정이 깊어진 사이에서 쌍방은 정서적인 의존은 물론 교류의 양이 많아지며 관계가 잘못되는 경우에 겪는 실망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많은 사람과 맺고 유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정 주는 교분 관계는 매우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미국 사람들의 교제 관계의 범위보다 한국인들의 교제 관계가 훨씬 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술집의 기능에 있어서 문화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술집은 친구들과 어울려 가서 즐기는 장소이다. 전혀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계하므로 술집에 혼자 가서 사람들을 사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사회에서의 술집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장으로써의 기능이 있지만 이와 아울러 혼자 가서 친구를 사귀는 기능적 측면 또한 크다. 바텐더를 상대로 술을 마시거나 혼자 온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매우 혼한 일이다.

이같이 한국인의 만남을 보면 대인 관계의 폭은 좁으나 관계의 정서적 깊이는 더욱 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겪는 심리적 고통이 더욱 크며， 평생을 원수같이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흔히 이혼한 부부가 친구로 남는 가능성이 미국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이 같은 관계의 문화 차이가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정의 관계를 바람직한 인간 관계로 여기는 정서 때문에 우리는 상호 간의 의리를 중시하고 관계의 배신 행위를 가장 금기시한다. 이러한 풍토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신 정치’라는 말을 들 수 있다. 가신은 함께 거처하며 가족같이 된 사람들로 우두머리와는 정으로 연결된 상하 관계를 형성한다.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이 교류 풍토가 이용된 것이 12.12사태이다.

또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객관적인 업적보다는 기존의 관계에 얼마나 충직했느냐를 중요한 준거로 보는 문화가 형성된 것도 이 같은 정의 관계를 중시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역할과 정의 두 가지 관계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양립한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는 가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역할의 관계이자, 장기간의 동거를 통해 형성된 정의 관계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흥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 관계가 정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즉 둘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역할의 관계로 여겨지더라도 교류가 지속되면서 정의 관계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을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문화적 정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역할의 관계이면서 정의 관계이지만，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가보다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그러면 우리는 역할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 관계로 변모시키며 정을 쌓아 가는가?

첫째, 상대방에게 마치 그의 가족 성원인 듯 행동한다. 。상대방과의 호칭을 “호형호제”로 바꾸며,”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하며, 상대의 사사로운 개인사 또는 가족 일에 관심을 표명한다. 우리 사회에 발달한 촌지 문화는 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촌지는 역할에서 비롯하여 품앗이 형태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정분을 들먹이면서 이루어진다.

둘째. 상대방과 주고받는 품앗이를 자주 한다. 우리는 “인사(人事)한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는 베풂을 받았을 때 이를 되갚는 것,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때가 되면 찾아 보는 것 같은 행위를 인간이 할 당연한 도리라고 보는 것이다.이 같은 주고받음을 자주 하는 가운데 당사자들 사이에 정이 형성된다.

셋째， 상대방과 함께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이다. 이의 가장 흔한 예는 2-3차 이상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볼 수 있다. 직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은 입사식을 거치지만 이는 역할 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이며， 부서 사람들과는 소위 ‘신고식’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기술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정을 들 수 있다이를테면 갑이 을을 지칭하면서 “정든 사람， 정떨어진 사람， 정이 없는 사람，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 사람, 무정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응하는 개념을 찾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 표현들만큼 각 대인 관계의 특징을 축약적으로 표현해 주는 용례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의 교류 문화를 정의 관계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정의 관계가 지나치게 부각되면 역할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부모가 자식을 정으로만 대할 때 바릇없는 자식을 만들며， 이 경우 부자의 역할 관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중용적 관계가 유지할 필요가 생겨 이 균형을 모색하는 문화작 기제들이 나타난다. 예부터 우리 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며 예의를 강조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에 예의범절은 내집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호칭 ，행동거지, 마음가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예”의 강조는 지나치게 정만 부각되는 쪽으로 관계가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 왔다. 거의 모든 관계들이 정과 역할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적용시켜 한국인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과계 유지의 역동적 기제들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대인 교류의 역동적 기제들 역할의 관계이건 정의 관계이건，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범， 관습， 금기， 가치 등이 형성되어 그 문화권의 독특한 관계 문화를 만든다. 한국인의 관계 문화에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제가 몇 가지 있다 체면， 눈치, 핑계, “우리”의 강조 등이 그러한 기제들이다.

**체 면**

우리는 왠지 망설여지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남이 보면 어쩌나 걱정을 한다.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적으로 지니고 있더라도 그 행위를 밖으로 드러낼까 말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 해 부정행위를 하려는 학생, 흙탕물을 튀기고 간 택시 기사에게 욕지거리를 하려던 교사，방금 싸웠으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부부 등의 사례를 일상에서 늘상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 공통적인 것은 행위자들 자신이 체면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쳬면을 유지하거나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하며， 실추시에는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체면에 대한 욕구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문화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체면은 남들로부터 자신의 자율성과 능력， 자질， 품성 등을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간섭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같은 자기 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매우 꺼려하며 체면은 쌍방의 관심사가 된다. 그래서 미국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일을 시킬 때도 ‘∼을 해라’의 명령조보다는 ‘∼해 줄 수 있니?(Would you please.)”라는 부탁조의 표현을 쓰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는 학생일지라도 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문화의 교류 문법이 있기 때문이다.

**눈 치**

사람들의 의사 소통 행위를 여러 나라를 통해 비교한 연구(Hall, E. T,The hidden dimension, NewDouble-day,1966)에 따르면， 표현된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황 맥락이 갖는 중요성의 여부에 따라 고맥락∼저맥락 문화권이 구별된다 한국과 같이 고맥락적 언어 문화권에서는 표현된 언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며,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알아서 해” ， “적당히 해”， “서너 병 주세요” 등과 같온 표현을 일상에서 쉽게 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눈치를 작동시킨다. 의사 소통의 기제로서 눈치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으로 기능을 한다. 우선 가장 혼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정(감정， 동기， 옥적. 자신에 대한 평가 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행위를 취하도록 눈치를 주는 것과 그 목적을 위해서 눈치를 채는 것이다.

이 같은 행태로서의 눈치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 볼 수 있다.이를테면 소품을 팔러 다니는 행상은 상대방의 눈치를 살펴 판매의 성공 여부를 미리 알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이 경우 눈치 주고받기는 관계의 진전 상황에 대한 단서의 포착이며, 상대와의 친소여부에 관계 없이 작용한다. 한국적 현상으로서의 눈치는 주는 사람과 채는 사람의 역동적 과정에서 전달 내용 자체가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는 의도의 은밀한 표현,또는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부언어(몸짓， 발성， 억양 등 표되는 안어를 수반하는 제반 비언어적 요소)로 알려 주는 행위이다. 눈치 행위가 이 같은 신호 이외에 어떤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 소통의 오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제로서의 눈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잘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피차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가 주는 눈치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한국적 눈치는 보기도 한다. 이 경우 눈치는 상하 서열적인 관계에서 아랫사람이 주로 윗사람에게 보이는 겸손한 행위의 표현인 것이다. 눈치를 잘 채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적 눈치 행위뿐 아니라 표현된 말에 실리는 비언어적 단서로부터 상대방의 의중을 잘 포착해 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지내 온 사이라면 당연히 눈치를 통하여 서로의 흉중을 읽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 못한 경우 “답답하다”. “꼭 말올 헤야 알아듣나!” 하고 탄식한다. 눈치의 중요성은 고맥락적 의사 소통 문화권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소위 가신 정치라는 단어가 한국의 정치판을 묘사하는 말로 잘 쓰이는데， 이는 같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우두머리의 흉중을 눈치 코치 로 잘 파악하는 심복을 중용하는 현실 때문이다.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은 활동적이며 상대 배려적 성격을 지닌 사람이지만 기회주의적(눈치꾼)이고 소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눈치는 적절히 해야 할 교류 기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눈치는 서로 잘아는 사이에서 자신이나 상대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환되는 내집단 성원 간의 의사 소통 양상이다. 눈치는 한국인의 대인 교류가 지닌 중요한 특성이며, 우리 문화권에서 역할의 관계이건 정의 관계이건 이를 해치지 않고자 하는 염원에서 발달된 의사 소통의 고유한 특성이다핑계한국인은 핑계를 잘 댄다.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핑계 없는 무덤 없다”등 핑계와 관련된 속담이 매우 많다. 핑계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볼 수 있는 사과‘excuse) 또는 정당화(ustification)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사과는 벌어진 일이나 실수에 대하여 미안함, 사죄의 의미를 지니며,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늦허서 미안하다”고 한다면 이는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양해볼 구하는 행위이다. 정당화는 벌어진 상황 및 자신의 행위가 어잴 수 없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는 “나오려는데 급한 전화가 와서 늦었다’’고 한다면 이는 정당화의 예이다， 핑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꾸며 대는 행위이며, 그 부정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적 변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당화가 사질적 해명이라면 핑계는 가공적 해명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인의 핑계는 기능적으로 볼 때， 해명성 핑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해명성 핑계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제시하는 설명이다. 1997년 ，벽초를 강타한 한보철강 특혜 대출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은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이 자신을 깃털에 불과하다고 한 진술은 책임 회피를 위한 해명성 핑계에 속한다. 이러한 핑계가 의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상황적으로 적합성과 진실성을 지녀야 한다. 적합성이란 핑계를 댔을 때 상대로부터 “그것도 핑계가 되느냐?”라는 반응을 얻지 않도록， 대는 이유가 상황에 맞는가 하는 판단준거이다. 핑계의 진실성은 핑계 제공자만이 안다. 이를듣는사람의 입장에서 거짓스럽다는 판단이 들면 핑계의 효과가 없게 된다핑계의 진실성 판단은 첫째， 핑계의 내용에 대한 거짓 여부 둘째， 부언어 및 비언어적 단서의 활용 셋째， 상대의 일반적 행동 및 성각. 특성 등의 종합적 처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부록B번역문**

**韩国文化和韩国人**

**通过酒文化看韩国人的日常和逸脱**

**为什么是酒文化**

不久前，问了一些来韩国没几年的外国人在韩国文化中最陌生的是什么，最先出现的单词就是“酒文化”。韩国人最熟悉的酒文化对外国人来说却最陌生，这一现象非常有趣。这可以充分地说韩国人的酒文化是独特的。本书中在韩国人拥有的多样文化中偏偏审视酒文化，不仅仅是因为韩国人拥有其他文化圈中难以见到的独特的酒文化。更重要的是，通过酒文化可以解读现代韩国社会的层面，其中，还可以理解“韩国人的逸脱文化”。

以劳动和现实这一实际存在的情况所围绕的生活的形态，即，把每天生活中体验到的生活的世界称之为日常的文化的话，游戏、庆典、宗教性礼仪等非日常的生活形态，即，把可以体验不同于日常生活的人生形态所出现的世界称为逸脱文化。通过对于宗教性礼仪或者游戏、庆典或者旅行等文化形态的研究已经指明这一事实，即，所有人都在反复日常和逸脱这两种不同性质的人生的同时生活着。

**劝酒的社会**

本文中，通过韩国人的酒文化来审视韩国文化的逸脱性的原因是，首先，宗教性礼仪或游戏等逸脱的文化现象中发现的文化性意义或特征也可以在韩国人的酒文化中直接找到，第二，为了总体地了解通过日常性看到的韩国人的文化和通过逸脱性看到的与之形态相异的韩国文化，同时了解日常性文化和逸脱性文化是非常重要的。

据国税厅的调查，1997年，韩国饮酒人口一年间人均饮酒量为烧酒120瓶、啤酒204瓶、威士忌1瓶、马格利酒12桶。这是可以与世界任何国家相抗衡的饮酒量。根据最近出版的《韩国人》一书中显示，1995年韩国成年男性每月平均饮酒12次，女性6次。酒的种类顺序为啤酒、烧酒、威士忌、清酒。还有一个有趣的统计，某公司最近以职员为对象对其一个月的买酒的费用和买书的费用进行调查（对公司员工一个月内的 ），其结果显示职员一个月买酒的费用是买书费用的10倍，1/3的人饮酒费用位于首位，其余的人饮酒费用位于2-3位。饮酒对象最多的是“酒友”，其次为职场同事、家人、业务上的客户，虽然也存在独自饮酒的人，但是占据的比例不大。饮酒最大的理由就是为了缓和人际关系。如同饮酒量一样，韩国人的饮酒文化也是非常独特的。韩国人拥有有史以来最为独特的酒文化，如， 一旦饮酒，就一定要彻底过瘾的暴饮文化、一定要跟上对方节奏饮酒才会被认为有礼貌的对饮文化等。

韩国人的酒瘾达到此种程度，由此，新闻上定期会出现就文化批判论，年底的时候会出现有关巧妙饮酒方法的报道。这一点也是独特的文化现象。

大部分韩国男性为了确认成为某一个团体的一员，而且仿佛是害怕被集团孤立而饮酒，他对“劝酒的风俗”提出批判论。不久前，在报纸上读到一位外国人写的的文章，其内容就是关于韩国人把酒当做某种“仪式”来饮的陌生的酒文化。主干道由警察把守进行饮酒检测，但依然难以禁酒的人正是韩国人

从这一程度来看的话，并不是饮酒人的错误，我们不得不展开来看“劝酒社会”的酒文化。

**饮酒习惯和酒文化**

首先，在讨论韩国人的酒文化之前，有必要区分“饮酒习惯”和“酒文化”。换言之，当说“那个人的饮酒习惯非常恶劣”的时候，表达的是一个人的饮酒方式，当说“韩国人喝酒没有一轮就结束的”时候，所要表达的就是团体性的酒文化特征。饮酒习惯是从个人角度来看的饮酒方式和态度，相反，酒文化包括生活在一定的社会或文化圈中的成员的集体性生活方式。

人们常说在韩国不饮酒是很难生活的，这与不喝酒这一个人意识无关，而是由于社会文化风俗所致。文化是集体组成人员所共有的特征，在集体性或集体文化强烈的韩国文化中有更加明显的体现。为了更好地理解韩国人的酒文化，有必要查看“文化化”、“社会化”这一观点。

韩国人的酒文化并不是单纯地基于韩国人的体质特征。相反，根据社会性、文化性环境创造并延续独特的酒文化，这样来看更为妥当。

一般来说，在同一个社会或文化圈中出生并生活的人们通过文化性、社会性过程，拥有相似的文化。再者说来，在韩国成长的人们拥有独特的韩国文化，在美国生长的人们拥有自己的美国文化。例如，如果观察在外国成长的韩国侨胞2、3代的生活，可以很容易的知道一个人的价值观或生活习惯等是在一定的社会或文化圈中生活的同时形成的。韩国侨胞2、3代虽然流着韩国人的血，但是有着与生活在韩国本土的人截然不同的文化。 酒文化也不例外。实际上，与生活在美国的韩国侨胞2、3代见面喝酒的话，可以看出比起韩国式的酒文化，他们更遵守美国式的酒文化。文化的特征中另一个很有趣的就是文化的“持续性”。即，文化不是一朝一夕就轻易改变的，而是拥有一定程度时间上的持续性，即使结合有关酒文化来考虑也会与此一致的。虽然现在年轻人的酒文化和以前不同，有了很大变化，但是，实际上，观察年轻人的饮酒状态的话，可以确切感受到韩国人独特的酒文化依然是按照原来的状态延续着。随着时代的变换，酒的种类或酒馆的结构等发生变化，但是，展望未来可以发现韩国人的酒文化的基本结构很难发生改变。

**文化人类学和酒文化**

抛开好坏与否，韩国人的酒文化是韩国人拥有的独特文化。虽然可以从多个视角观察韩国人的酒文化，但是最具代表性的视角有伦理性视角和文化相对论视角。所谓伦理性视角就是“韩国人的酒文化，这样也好吗？”的形式，以伦理性价值观为标准，讨论酒文化的有害性，对个人或社会的恶劣影响等的立场。虽然伦理性视角对于统治酒文化，使其成为正确的酒文化方面做出贡献，但是在酒文化对于理解其他文化性特点上没有帮助。相反，想要原封不动地理解酒文化这一现象的视角就是被文化人类学家们当做学问性方法论的“文化相对论”立场，它采取的是用一个文化或个人的价值观尺度来判断其他文化的，与自我文化中心论相反的立场。文化是不偏于伦理性价值判断的文化，具有只是通过其他的阅读工作展示出自身的文化性意义和模样的属性。

**日常和逸脱**

人类体验着现存的两种生活样式的同时生活着，即日常和逸脱。虽然看似是难懂的话题，但是回顾我们的生活，其实是很容易搞通的话语。从旅行或观光的层面来讲的话，出去旅行的时间成为逸脱的时间，出去旅行之前或者旅行回来后的时间就成为日常的时间。一般，因为人们白天会在工作场合，白天的时间就成为日常，夜晚的时间就成为逸脱。以一周为单位进行考虑的话，一般一周中的时间为日常，可以享受闲暇和娱乐的周末就成为逸脱的时间。

如果有每到周日就去教会或寺庙的人，那么宗教性的日常和逸脱的时间就被更加明确地区分。即，周中就是可以规定为世俗性的生活的日常的时间，而周末或周日就是可以规定为宗教性时间的逸脱时间。万一有喜欢看电影的人，电影院就是逸脱的空间，看电影的时间就是逸脱的时间。

首先来看一天的生活，可以把待在劳动现场的时间当做日常的时间，把离开劳动现场，娱乐或闲暇的时间当做逸脱的时间。像这样，如同游戏、运动、旅行、观光、闲暇生活、宗教性礼仪、庆典的逸脱文化是和我们的生活紧密相关的。日常和逸脱这两种异质性的生活样态一直存在于我们的生活中，我们穿越这两种世界生活。

在韩国也被众所周知的宗教人类学家Mircia Eliade用“俗”和“圣”这两个用语来表现和说明日常、逸脱这两种生活的现存形式。原来，Mircia Eliade为了区分宗教和非宗教制定了两个概念，“圣”具有与“俗”相反的属性，把“圣”所表现的生活范畴具体展示出来的文化现象看作是宗教。酒主要是在夜晚喝的。例如，在教会或寺庙里的时间和在教会或寺庙之外的时间是异质的，在教会或寺庙里的空间和在教会或寺庙之外的空间也是异质的。当然，虽然Mircia Eliade为了阐明宗教的属性制定了“圣”和“俗”的概念，但是他的文化理论同样适用于基于宗教现象的庆典、游戏、观光、以及与韩国人的酒文化相似的文化现象。就如同人们交替着宗教性时间和世俗性时间生活一样，人们也在交替经历着日常和庆典的时间，劳动和闲暇及游戏的时间，被日常之事充斥的日常时间和旅行时间中生活着。（人们也在生活中交替经历着……）Mircia Eliade将这种人类的生活结构称之为“辩证法性的生活结构”。重述一遍即为人们在辩证地反复着日常和逸脱时间的同时生活着。

**白天和夜晚**

根据Mircia Eliade的理论，对于宗教性人们来说，“圣”的时间和“俗”的时间具有彼此不同的象征性意义，圣的空间和俗的空间也不是统一的。虽然对于韩国人来说是再熟悉不过的场景，但是对于初入韩国的外国人来说无疑是非常陌生的文化现象。实际上，如果让外国人在韩国文化中选择最陌生的文化的话，他们毫不犹豫会选择酒文化。

如果这样，那么韩国人为什么每晚都要行使饮酒这一礼仪？为了得到这一疑问的回答，就有必要来展开看一看集中研究礼仪结构的文化人类学家Van Gennep所提出的“通过礼仪”(rite of passage)的概念和Victor Turner的(liminoid)概念。按照Van Gennep的说法，人们通过一生不断地向着一个社会性地位或从一个象征性状态向下一个状态移动，这种状态的变迁是通过一定的礼仪性程序实现并确认的。Van Gennep将这种礼仪（成人仪式、结婚仪式、葬礼仪式）叫做“通过礼仪”，通过礼仪是包含隔离(separation)，过渡期(transition)，融合(incomoration)这三个阶段的。

以在非洲等地可以看到的成人仪式为例，任何人到了成人的年龄，与生活到现在为止幼年时期的朋友集团隔离后，一段时间内寄居在其他地方，学习部族的神话或者是作为成人生活所必需的知识，这时就是既不是儿童又不是成人的过渡期状态。过去这一段时期，经过象征着获得新的状态和正体性的融合的仪式之后，以成人这一新的身份进入社会。把集团饮酒行为带入Van Gennep的理论框架中来看的话，可以发现有趣的酒文化结构。即， 饮酒的时间和饮酒前后的时间区分来看的话，可以发现饮酒前的时间-饮酒的时间-饮酒后的时间这三种异质性的时间。

这三种类型的时间可以分为不同的结构进行理解，具有脱离劳动、向着逸脱时间旅行的特征的“隔离”的时间， 在不同于劳动场的场所中经历不同事物的“过渡期”性的时间，还有回归到家庭或劳动场所的“融合”的时间。

酒馆的空间可以理解为职场-酒馆-（家）-职场三种构造，韩国人主要是在酒馆里饮酒，在家中饮酒的情况非常少。通常所说的必须在酒馆里喝酒才有味道也是因为酒馆这一空间所具有的文化性象征性。职场是所有一切都正确安放的统治性宇宙，家是和亲族按照血缘相混合的定下上下序列的空间，相反，酒馆这一空间，比起秩序，是充满了混乱和逸脱性、流动性和不完整性的不受统治的宇宙。结果，人们为了在充满逸脱性文化价值的酒馆里享受逸脱的文化而饮酒。

这样来看的时候，可以看出酒文化的结构根本上是和所有礼仪行为的结构相统一的。这里重要的是相当于中间期的过渡期，即饮酒的时间，酒桌的空间。

**韩国人和集团文化**

3月初经过某大学的正门，一个巨大的展示板映入眼中。展示板上密密麻麻地粘贴着各种聚会通知的墙报。00高等院校的新生欢迎会，00高中校友新生欢迎会，00社团新生欢迎会……

那天，很晚的时候从学校出来，经过学校周边遍布的酒馆，四处传来学生们的呼喊声和喧哗声。进到酒馆看到00社团正在进行新生欢迎仪式。每当新生们一口喝掉酒的时候，就会到处响起欢声和掌声。

韩国人非常重视集团性，基于氏族社会的血缘中心文化产生了血缘、地缘的社会组织原理。在传统社会中，非常重视以出生血统而定的家门、出身，进入现代社会，家门的重要性弱化，教育机关的作用变大，在同一个教育机关中接受教育的同门或同学这一组织在管理社会生活方面作为重要的变数而被使用。学缘及地缘和学缘的差异在于血缘或地缘是伴随人们出生命运性的事物，学缘是某一程度上根据自身的意志而形成的。与延至如今的传统流传的血缘或地缘中心文化一起，现代韩国社会中又出来了被称为韩国社会的顽疾的学缘这又一社会组织原理。

虽然人们进入社会建立新的人际关系，但是与血缘、地缘和学缘相比，盲目性和强制性很弱。血缘也好，地缘也好，学缘也好都重视集团性。通常所谓的在韩国集团文化发达，韩国人重视集团性，也具有相当的道理。从社会组织和人际关系层面来看的时候，通过韩国文化带有的独特性，可以掌握由于受儒教文化影响而产生的年龄的序列意识。韩国人相互见面的话，通过直接或间接地询问年龄或年级来确定自己和对方的序列，韩国人对于这一点是非常熟悉的。因为，首先确定某一程度的序列，对于后面的行动更加便利。与此相同，根据年龄的序列意识和地缘、学缘中心文化中产生的就是前后辈文化。

当然，虽然前后辈这一社会组织原理不仅仅是同乡前后辈或学校前后辈，还涉及到职场前后辈、军队前后辈等广范围的，但是地区前后辈或学校前后辈比其他前后辈关系组织力更强。观察每年3月份大学里集团性组织的新生欢迎会和同学会的样式的话，可以看出韩国人为了把自己和他人联系在一起下了多少工夫。学缘与血缘和地缘不同，因为是人为制作形成的集团，所以需要通过不断的活动来强化团结力和奠定共同体意识，在行使这种集团礼仪的方面，必须登场的无疑就是酒。韩国人每天晚上到处行使饮酒这一集团礼仪。 在韩国很难找到独自饮酒的人。通常说起“饮酒”就是意味着和某人一起饮酒。把韩国的酒馆和西欧的酒吧相比的话，很容易理解韩国的酒文化。韩国的酒馆结构和西欧常见的酒吧的结构不同。在酒吧里，独自喝酒是可能的，但是韩国的酒馆结构中独自喝酒几乎是不可能的。

当然，韩国也有受西欧影响的西欧式酒吧，但是，大体上韩国人享受饮酒的酒馆是根据人们可以聚集在一起饮酒的构造建造的。酒文化作为集团礼仪真实地呈现出来的就是聚餐文化。 聚餐按其字面来看就是聚集起来一起吃饭的聚会，但是与其说是单纯的物理性的饮食的摄取活动，不如说是为了“创造集团”或“培养集团性”的礼仪的意义更大。因此，职场的聚餐期待所有成员的参与都是非强制性的，没有酒的聚餐是难以想象的。无论与世界上任何国家的人相比，韩国人的饮酒量都不会处于下风，但是在一起饮酒的集团性酒文化中也可以找到酒精中毒少的原因。但是酒桌并不是单纯地只发挥“创造我的集团”或“培养我的人”这一种可能。从其反面来看，酒桌也是隐秘地实施区分我的人和非我的人的工作和“支开别人”的工作的地方。

如果是经历过边喝酒边忍受别人的辱骂或指责的人，可以更容易地理解这种酒桌的功能。一个人喝酒，其他人跟着相互碰杯喝酒的“对酌文化”或“转酒杯”文化也和集团性文化相关。在有对酌文化和转酒杯文化的酒桌上，不饮酒真的是一件非同寻常的难事。与西欧人的自己的酒杯自己拿，根据自己的酒量饮酒的酒文化完全不同这里可以窥视到以个人性为基础的西欧人的文化和重视集团性的韩国文化之间的差异。“今天让我们一醉方休”这一看似冷酷却很好地表现了韩国文化的广告，也很好地表现了韩国人的酒文化和集团性情感的关系。酒桌上的所有人必须把酒杯喝空的“oneshot”文化，旁边的人如果把酒杯喝空的话，旁边的人也必须把酒杯喝空这一类似于“冲浪运动”的奇特酒文化，也是在集团成员中不想认可排斥任何人的集团性的表现。

有时为了创造及维持集团性，需要盲目性和强制性，白天的文化，即劳动的文化中重视合理性、理性、个人的力量，所以对于培养要求盲目性的集团性来说并不是合适的时间，比起理性，受感性支配的夜晚文化，充满communitas性感情的酒文化，可以为培养团结力和集团性提供合适的环境。“一起吃饭”这句话已经超越了物理性的层次，包含着象征性的意义。像印度这样身份制度严格的社会中，身份不同的人们不可以坐在一起吃饭，在全社会形成制度化，韩国古代也是根据性别（另外有一个男性的饭桌）、年龄（大人和小孩儿的饭桌分开）、身份（根据社会性身份，吃饭分开），饭桌也不同。就像“凉水也分上下”这句话所暗示的那样，可以看出饭桌上也分顺序。

韩国人的酒文化中另外很有意思的一点就是不会在一个酒席上结束，而是换几个酒馆，一直喝到成为小葱泡菜的时候为止的“次”文化。“次数”越是反复增加，醉酒离开，夜晚的文化越是深化，集团性礼仪的浓度也加深。随着持续移动场所，最初酒桌上的成员有些留下，有些人离开，为达到没有脱离者，所有的成员都费尽心思。因为没有任何人想要打破集团性的礼仪。即使离开酒桌的时候，也要选择能够让成员们接受的理由，必须得到他们的允许。但是，随着几轮下来，比起初期的成员，人数减少，只有坚持不懈地留下来的几个人始终维持着酒桌。有时，通过有意地转换酒桌来支开那些非“我们”的人。坚持留到最后的集团成员，比起最初的集团，彼此更加能够感受到同质感，做为同一派感受夜晚的文化，夜晚的礼仪。直到最后一起待在酒桌的人们，就像一起经历困难似的成为同志。因为酒精中毒是独自饮酒的人常有的症状。对于韩国人来说，重要的不仅仅是酒的量，通过酒来焚香集团文化也很重要。与西欧相比较少的迷药文化也可以在同一脉络中进行理解。感受个人兴奋和幻觉的个人主义文化的产物--现代迷药文化是与重视集团性的韩国人的情绪极不相符的。

如今，虽然围绕饮食的社会性制约基本消失了，但是，人们一起吃饭或者一起喝酒超越了物理性层次，带有社会象征性。当对对方说“什么时候吃个饭”或者“什么时候喝一杯”的时候，并不是指的单纯的一起吃饭或者喝酒这一生理性层次。比起一起吃饭，一起喝酒所带有的文化象征性更强。一起吃饭主要是延续现存的关系或者是为了开始新的关系，但是，一起喝酒不仅为了延续现存的关系还为了关系的深化转换。因为喝酒的时间和场所就是前面所说明的圣的时间，不安定的liminoid时间，所以可以说是打破现存关系建立新关系的好机会的场所。而且因为communitas情绪所代表的liminoid时间中，比起彼此差异，通化的情绪更强，所以可以说是建立新的人际关系的好时间。韩国人就是社会性地运用酒和酒桌所带有的文化象征性的同时生活着。

**白天和夜晚所呈现的不同的“自我”**

人拥有一个自我？不然还是拥有多个自我？大体上，以前的人类学研究中表明，一个人的自我是始终如一地出现的，埋头于对固定的自我探究中，但是最近根据一个人所处的环境或状况，自我呈现出不同的样式，想要迎合由于环境或关系性带来自我变化的研究的焦点的倾向更加强烈。可以看出，个人的自我不是按照一种固定的样式始终如一地表现出来的，而是根据所见的人或自身所处的社会文化性状况不同地展现出来。例如，一个个人的模样在对待职场事务的时候和对待所属职员的时候，所表现出来的是不同的。正因如此，通过一个人的自我在某种情况和某种关系性中以某种样式表现出来，可以掌握他所属的社会和文化的性质。根据她的说法，狄奥尼萨斯型的人逃避日常生活的单调的反复，寻找一条通往迷人境地的道路，与此相反，阿波罗型的人不相信那种经历，反而喜欢追随秩序井然的日常生活。喝着酒，一个人的真正面貌会暴露出来。这句话就暗示了，白天文化中所表现的自我的模样和夜晚文化中所表现的自我的模样的不同。有这样一句话“喝着酒人会改变”。

Ruth Benedict 的两种人类型是对集团性“理想的人性”的说明，也受到了众多学者们的批判，虽然这是事实，但是结合韩国人的酒文化来看的话，可以发现很有趣的现象。即，阿波罗型人是根据儒教秩序变化的，在白天文化中可以看到的韩国人的模样，相反，另一种类型的人可以说是在夜晚文化中发现的韩国人的人性。当然，即使喝了酒，不同的人也会表现出不同的模样，但是窥视集团性酒文化的话，确实可以发现非阿波罗型的人性以集团性表现出来。炮弹酒、one-shot(根据饮酒的量来揆度对方的爱情或友情等的饮酒方式)和冲浪酒文化可以看做是为了在短时间内一起达到集团性的境界所产生的一种权宜之计。而且，因为在酒桌上一贯地有变成集团性模样的倾向，所以喝酒后人的改变在一定程度上为社会默许。

**通过交流行为看韩国人的社会心理**

和朋友一起在饭店吃饭是在任何一个文化圈中都很常见的情况。但是，韩国和美国相比来看的时候有一个很有趣的区别，就是付钱的行为。在韩国，一行人争先恐后抢着买单，结果某人为全部的食物买单，相反，在美国，拿到账单，个人计算自己吃的食物的价钱加上税金进行结算。就像韩国人对美国人的这种行为感到诧异一样，美国人也认为韩国人的行为难以理解。这种事例不过是向我们展示文化差异的一种而已。

在社会生活中，我们每天在不同的方面和不同类别的人进行交流。观察过这种交流的人们将韩国人多样的行为模式称为“韩国人的特性”。 虽然这些特性彼此会有一定的联系，但是，仔细研究这些内容的话，它们并没有一致性，甚至彼此矛盾的情况也不少。例如，注重体面、看眼色、找借口及多样的心情等被看做是韩国人的交流特性，这些都是各自独立地展示出来的。

从这些行为来类比韩国人的心性，韩国人可谓是集团主义性的，相反，有些人个人主义也很强。这些韩国人表里不一的主张与韩国东方礼仪之邦相传的信仰相对立。 笔者们采取文化比较的观点，把与此相似的几个主张贯穿起来研究。因为从某一个文化的成员所展示出来的多样行为模式中引出这个文化的特征的这项工作，通过与其他文化的比较可以更加明确地实现。通过此类工作，探索出对于韩国社会特征的心理学性理解。具体来说，企图了解韩国人在日常生活中是如何维持待人关系的，这个特征是如何展现的。这里，见面的关系指的就是具有持续性的亲人、朋友、同事及上下关系。

**韩国人见面的模式**

人们主要和谁变得亲近？虽然我们在日常生活中和各种各样的人见面，但并不是和他们所有人都保持亲密的关系。是否和见过一次面的人继续保持关系，那种关系要进行到哪种程度，都是多种因素的复杂结果。主要和谁亲近，见面主要做什么，在这些方面不同的文化圈可以看出有很有趣的差异。可以发现对亲密交流关系的进行产生影响最大的就是当事人所具有的能力或魅力之类的个人要素和两个人之间的缘分。

个人主义文化圈中，左右亲密关系建立的主要资产就是个人的能力、魅力、口才之类的。人们之间的交往很容易根据自身对对方所具备的属性的评价来实现。 如果对方留下的印象是有魅力的或者是有能力的情况，带着对对方的好感接近，互相传递这种印象建立亲疏关系。与此联系起来观察的话，西方很早就开始对于发达的社会心理学的重要主题--印象评价和管理并非是偶然的。 因为对人的评价都是基于外貌、性格、资质能力比较外在的特征，所以，这些特征处于劣势的人们在待人关系方面感到很大困难，于是为了改善待人关系开发并运用多种程序。这些程序大部分是与使人减少害羞，或者教给人们可以做好印象管理的方法，或者训练口才，增进对对方的敏感性的方法等关系的能力开发相关的。

为了在初次见面时给人留下好的印象而接受教育。美国人无论对方是谁都可以轻易地接近，和不同的人积累亲密的关系。在美国的中小城市里，逛过公园的人们，对于对面过来的人所传递过来的问候或微笑不太了解，以为对方对自己有特别的好感，由此产生误会的情况也很多。

但是，韩国社会中，人们关系的缔结比起当事者的刻意努力或魅力，受关系或缘分的影响更大。从古代到农耕社会，定居生活的韩民族与村落外面的人们友好见面的机会很少，几乎所有的见面都是与在同一个村落中居住的人们之间的持续见面。所以，比起与陌生人的交流方式，同一村落中人们之间的交流方式更加发达。像这样久远的社会踪迹在今天这样的产业社会中也有出现，两个人是同乡、同学或者是在同一个小区居住都对关系的持续产生影响。如果发现这些要素的共同点，认为彼此的见面更加愉快，就经常使用缘分来表现。如果分析韩国社会中初次见面的人们之间的对话内容的话，这种倾向性就会更加明确地表现出来。

我们初次见面的情况往往看起来就是寻找可以连接两人关系的人。依靠学缘、血缘、地缘等的人脉动员活跃地展开，成功的时候，关系会更加顺利地展开。为什么会产生这种现象呢？这是因为在韩国社会中，认识（我们）的关系和不认识（别人）的关系的交流方式看起来有很大差别。韩国人把他人区分为“我们”或者“他们”，这里的他们比起中立的存在，更多的是看到牵扯到竞争性或否定感情的他人。所以，人们想要把不认识的关系转化为认识的关系。因为在认识的关系中，双方可以使用我们这一称呼，可以按照能够感受情感的关系进行交流。即，对于认识的关系和不认识的关系有着各自不同的行为规范。 很好的例子就是在饭店里，可以看到虽然彼此分开点餐，但是会放在中间一起吃，结帐的时候不是按照各种吃的食物分开结算，而是某一两个人结算所有的账单。而且，聚集在一起玩的情况中，不是三两成双地对话，而是全部围坐在一起唱歌娱乐的状态也是很好的例子。 韩国社会中重要的社会关系不是只是和认识的人们之间的关系，而是和依据故乡连接起来的内集团成员间的关系。这不是会因为不合心意就会断绝的关系，而是在共同的生活空间中维持持续的关系，在“情”这一内心层次的传达积累感情的交流。

**因为什么而见面-关系的心理学**

人们在和很多人见面的同时生活着。因为工作或者玩乐而见面，因为想念或者好奇而见面。虽然因为多种多样的理由见面，但是，在这点上也出现了有趣的文化差异。个人主义文化圈中人们的见面追求欢乐或实际利益的倾向很强。他们作为独自的存在，不断地探索彼此值得交流的人，在此过程中，做出让对方知道自己的嗜好、性格、意见等的自我暴露。是否持续见面取决于像这样相互暴露的结果，感觉到对方的魅力、好感以及关系的有益性程度。相反，集团主义文化圈中的见面追求情绪性共鸣的倾向很强。见面的人不是完全不认识的人，而是维持可以连接为内集团的关系，或者根据那样的关系连接的见面，从关系出发维持某种程度的持续性。因此，双方在关系的框架中接受对方，为使自己不受排斥而努力。在这个关系中，自我暴露并不是那么重要，也不会变得很深。为了使自我暴露不伤害见面的气氛，而局限在彼此可以接受的范围内，尤其是不想表现出对方讨厌的一面。比起由于讨论意见对立，更乐意讨论彼此没有负担的主题，或者努力通过愉快的话题和游戏，为不伤害见面的气氛而努力。谈论着政治性话题，两个人的立场对立或者引起争论的话，说着“停止这个讨论”转变话题的情况也很多。

格斯托和KTV如今成为全民性的娱乐，可谓是很大程度上适用了这样的讨论文化的忌讳心理。所有的人际关系都是带着有意识的或无意识的目标实现的。心理性地分析人际关系的话，可以从作用的关系和情的关系来进行分析。在聚会或者见面中，评价对方的时候，比起有多么多的优点，我们更倾向于评价对方有多么少的缺点。可以看出“不错的人”这一评价反映了这一倾向。甚至，在大学的教室里也无法实现活跃的讨论，其中一个原因就是回避通过意见对立造成不便关系的这种心理。作用的关系，即，两个人有明显的作用，一起有效地实现特定的目标的关系。在有效地实现这一关系的目标方面，社会正式或非正式地规定了多样的规范和言行规范。比如，可以听到上名下效的规范。上面的人指示下面的人，下面的人接受指示，通过这种规范来区分上下关系，因为得以适用，所以避开了每一个案例一个一个地追究情理的这一浪费性的行为。

**指向“情”的关系的韩国的交流文化**

情是韩国人的家族关系为基本框架，在家族关系中最为强烈。情是没有明确的目标，通过在一起的经历形成的，情的深度取决于和对方做像一个家族相同的行动的程度。盖同一床被子睡觉，在同一个碗里吃饭，没有明确的目标一起度过无所事事的时间，一起沐浴，不分你我，和亲密无间、开诚布公的人一起产生感情。 但是，即使是长期建立的关系，如果算计的行为，不顾忌对方的行为，没有一颗感谢或抱歉的心、相互独立的行为很多的话，很难产生感情。重申一次，为了建立感情，双方必须意识到像家族一样的“我们”，有什么事情作为附加条件或者算计而做的事情必须要少。当能够感受到在对方的心里把我当做家人一样珍惜的心时，对对方的感情就会产生。这样产生的感情会以再次珍惜对方的心进行传递，同时发展为有感情的关系。当事人很难亲自掌握感情的深度，日常生活的具体事件中经历对对方的感谢、愧疚、温暖、亲近等情绪的同时回味掌握。

在分析研究传统的农村社会的交流方式（金珠熙 《换工和情的人间关系》1993）中可以看出，在人际关系中区分“给予情的关系”和“不给予情的关系”的倾向很强烈。在给予情的关系中，彼此给予接受的象征多样，频率也很频繁，动机也可以很单纯地理解，负担也很小。而且，接受帮助的时候，能够强烈地感受到谢意，不接受的时候，失落感也很强烈。同时，给予帮助的时候，能够强烈地感受到价值，不能给予帮助的时候，歉意也很强烈。在产生感情的关系中，虽然可以看做是由于对方的帮助产生的作用，但是也存在把它看做是由于情而产生的事物的倾向。例如，祭祀的时候，虽然是婆婆帮助了儿媳产生的作用，但是，把它看做是由于情而进行的帮助，这种认识使两个人之间的情分更加深刻。这种情的关系中形成的帮助行为和理所当然的这一点和在意图性作用的方面中亲切的行为相区分，对关系的当事者来说没有局限于一方面的普遍性和价值指向性。同时，在不具备根据普遍规范的责任和义务性的方面，也是和基于自卑心的行为相区分的。因为在感情变深的关系中，双方情绪性的依存当然是交流的量变多，关系错误的情况中引起的失望和危险负担很大，所以很难和很多人建立和维持这样的关系。因此，我们社会的成员们建立的情所给予的交情关系可谓是非常有选择性的。

比起美国人交情关系的范围，韩国人的交情关系更加狭窄。在酒馆的功能方面显示出了文化的差异。韩国社会中，酒馆是和朋友一起去玩乐的地方。由于警惕完全陌生的人的接近，独自去酒馆和人交流是特别罕见的事情。在现代史上，这一交流风俗被最为悲剧性地使用的就是12.12事件。和调酒师一起喝酒或和独自来酒馆的人一起也是非常常见的事情。同时，观察韩国人的见面的话，可以看出虽然待人关系的幅度窄，但是关系的情绪性深度更加深厚。因此，关系错误的时候，经历的心理性痛苦更大，平生向仇人一样度过的情况很多。谈论到在美国很多离婚夫妻成为朋友的可能性相对更高，认为是适用于相同关系的文化差异。由于把情的关系当做所期待的人际关系的情绪，我们重视相互间的情谊，严禁关系的背信行为。可以听到反映这种风俗的“家臣政治”。家臣作为一起居住，像家人一样的人，与首领形成由情连接的上下关系。

美国社会中的酒馆虽然也具有作为和朋友一起玩乐的场所的功能，但是与此同时，独自去酒馆交朋友的功能性层面也很强大。而且，评价人的时候，比起那个人的客观的成就，现存的关系有多么忠实成为重要的依据，这种文化的形成也是由于重视像这样的情的关系。 作用和情的两种关系不是相互排斥的，在所有人际关系中并存。比如，夫妻关系是追求家庭安宁的作用关系，也是通过长期的同居形成的情的关系。在韩国社会中，有趣的是这两种关系都指向情的关系。即，两者之间的关系虽然本质上可以看做作用的关系，但是，持续交流，具备情的关系性特征，带有当然的、所期待的文化性情绪。因此，虽然夫妻关系既是作用的关系也是情的关系，但是，一般来看，具有比情的关系更为强烈的特征。那么，我们如何将作用的关系转化为情的关系，并且积累感情呢？

首先，对对方，像他的家人一样行动把和对方的称呼改为“称兄道弟”，经常使用“我们”这一表现，表明对对方的私事或家事的关心。韩国社会发达的礼金文化也是植根于此，这一方面很强烈。虽然礼金是基于作用以换工的形态行使，但是，很多情况是激起情分而形成的。

其次，和对方给予接受的换工经常会有。经常使用“打招呼”这一句话，这是接受施舍的时候回报恩惠，有时间的话，找去向对方表示感谢，类似行为可以看做是人类理所当然的道理。 经常做这些给予接受的行为的同时，当事人之间形成感情。

第三，和对方一起经常做不拘泥于形式的事情。这最常见的例子就是2-3次以上的酒桌上。新入职场的新员工们虽然经历入职仪式，但是这不仅仅意味着作用关系的成立，而且必须要经历和部署同事所谓的“新入仪式”，才能得到成为“我们”的一员的认可。在记述韩国人的对人关系方面，使用最多的就是情。 比如，甲称呼乙的同时，用“有感情的人、陷入感情的人、没有感情的人、厌恶及欣赏感情都有的人、无情的人”等来表现的话，我们可以推测两个人是何种关系。虽然在西欧社会中很难找到对应此的概念，但是像这种表现一样，粗略地表现各待人关系的特征的例子也不易找到。韩国人的交流文化可以看做是情的关系文化，情的关系被过分地附加的话，会对作用关系引起严重的问题。父母只用情来对待子女的时候，会造成没有礼貌的孩子，这种情况下父子关系会受到威胁。因此，有必要维持适当的中庸性关系，出现了寻求这一均衡的文化性记载。

从古开始，韩国作为东方礼仪之国，强调礼仪是代表性的。韩国社会里，礼仪规范是和内集团人们的关系中形成必须遵守的称呼、行动、思想准备，以端正为核心。这一“礼仪”的强调是发挥了防止关系走向过分地只附加情的方向的作用。几乎所有的关系都可以在情和作用的两种层面进行分析，就让我们来对比看一下适用这种观点的韩国人的见面中出现的关系维持的生动的机制。

**待人交流的生动性机制**

作用的关系也好，情的关系也好，为了达到关系的目标，形成规范、习惯、禁忌、价值等，制造其文化圈的独特文化关系。韩国人的关系文化中，发挥使人们之间的交流顺利进行的功能的机制有几种。体面、眼色、借口、“我们”的强调等就是这样的机制。

**体面**

我们不知道为什么犹豫或者做不确定的行为时，别人看来都会担心。即使对于行为的判断有内在的基准，但是其行为是否表露出来对别人的存在与否带来的倾向很强烈。没有好好准备考试，打算做一些否定行为的学生，想要骂溅了一身泥水而断然离去的司机的教师，虽然刚刚吵过架，但是在别人面前以什么时候那样了的形式微笑聊天的夫妇等事例在日常生活中随处可见。这些事例中的共同点就是行为者们考虑到自己的体面。人们想要维持这样的体面或不失去体面，失去时为了恢复而努力。对于这种体面的欲求是任何文化圈中或根据对于文化的价值展现出重要的差异。因为这就是即使是学生也要尊重他的自律性的文化交流方法。所以，像这样对自身受到威胁的情况非常排斥的话，体面就成了双方关心的事情。所以，美国老师想要指使学生做事的时候也是，比起“做……”这样的命令式，更多使用“你可以做……吗”这样的拜托形式，这是理所当然的。

西方的个人主义文化圈中，体面是想要从别人那里得到对自身的自律性和能力、才智、品性的认可的欲望和不被干涉的欲求得以满足，从这两个方向展现出来。

**眼色**

根据对各国人的沟通行为的比较研究，在分析人类表现方面，根据语境情况的重要性与否区分为高语境文化圈和低语境文化圈。韩国在高语境语言文化圈中所表现的语言，根据情况可以被多样化解释，与直接的表现方式相比委婉的表现方式更多。例如，像“看着办”，“适可而止”，“来三四瓶”这种在日常生活中常见的表现方式。在这种情况下，人们根据眼色来行事。作为沟通机制，根据情况，眼色发挥着达成不同的目的作用。首先，在非常混乱的情况中，为了让对方把握自己的心理（感情，动机，目的，对自己的评价等）然后以此采取合适的行动而察言观色。这种情况下的眼色，可以看作是所有文化圈中都体现出的普遍现象 例如销售杂货品的货郎通过观察对方的眼色事先知道销售能否成功，并采取合适的行动。眼色的传递与接收是对相关进展情况的线索掌握，与对方的亲疏与否无关。眼色作为韩国的一种现象，在使眼色人和察眼色人的活动过程中，不是传达内容本身而是希望传达内容的意图的隐秘表现。另外，用副语言（肢体动作，发声，语调等表现的伴随语言的各种非语言性要素）告诉对方所传达的内容不是事实的一种行为。

在眼色行为含有除信号之外某种具体内容的情况下，会经常出现沟通之间的误会。作为这种机制的眼色，更容易在熟人之间形成。因为在彼此陌生的情况下，不能把握对方眼色中要传达的信息是什么意思。另外，看一个韩国代表性的眼色。这种情况下，眼色在上下级排名关系中，主要是下级对上级谦逊的表现。会察言观色的人不仅会把握对方的目的性眼色行为，而且从表现话语中的非语言性线索里把握对方的心思。如果是相处很长时间的人的话，当然希望能通过眼色读懂相互之间的心思。不能读懂的话就会很郁闷。会叹息的说“一定要说出来才懂吗！”

眼色的重要性在高语境沟通文化圈中发挥了真实价值。“家臣政治”作为描写韩国政界的词语而被广泛使用，这是因为在共同的家庭中长久生活，通过眼色把握领导心思的心腹会受到重用。虽然会察言观色的人很活跃，很会关怀对方，但被认为是两面派应该小心。因此眼色也是应该适当的交流机制。通常眼色是在相互熟悉的人之间，为了维护自己或对方的面子而交换的集团内成员间的沟通形式。眼色是韩国人际交流中很重要的特性，在我们的文化圈中，无论是角色关系还是感情关系，都是在不使其受伤害的愿望中产生的沟通的固有特性。

**借口**

韩国人很会找借口“姑娘即使怀孕也有话要说”“没有无借口的坟墓”等和借口有关的俗语很多。借口是在任何文化圈中都可以看到的道歉，并且和正当化性质不同。即，道歉是对发生过的事或者失误抱歉，具有赔罪的意义，包含某种程度上有甘愿接受的意思。比约定时间晚的时候如果说“对不起我来晚了”是认为自己错了，寻求对方谅解的行为。正当化是展开的情况与自己的行为由于无可奈何而变得合理化的表达。

比约定时间来晚了如果说“想早点来的但是来了一个紧急电话所以晚了”就是正当化的例子。借口是对自己的行为寻找理由的行为，对其否定性的行为所产生的结果规避责任的辩解性质很强。因此，正当化是实质性的解释借口就是加工性的解释，可以这样进行区分。韩国人的借口从机能来看，可以划分为解释性借口。所谓的解释性借口就是针对自己的错误的行为，为了逃避自己的责任而提出的说明。

1997年席卷碧初的韩宝钢铁特惠贷款相关的接受调查的洪仁童 前青瓦台首席总务称自己不过是羽毛的陈述为了规避责任属于解释性的借口。这样的借口按照意图是为了成功其内容情况应具有适用性和真实性。所谓的适用性就是找借口的时候为了从对方那里不会得到“那个是借口吗”的反应，适合情况的判断准据。借口的真实性不只是借口的提供者。站在听的人的立场上如果听到判断为撒谎就没有借口的效果。

借口的真实性判断，第一，对借口的内容是否撒谎，第二，副语言及非语言的头绪的活用，第三，对方的一般行动及想法，特性等依靠综合性的处理形成的。

**版权声明**

任何收存和保管本论文各种版本的单位和个人，未经本论文作者同意，不得将本论文转借他人，亦不得随意复制、抄录、拍照或以任何方式传播。否则，引起有碍作者著作权之问题，将可能承担法律责任。

1. 温鑫,<彼得·纽马克的翻译理论在不同类型文本中的应用> [J],太原城市职业技术学院学报,2010年第8期. 第205页 [↑](#footnote-ref-1)
2. 刘金龙，《纽马克翻译理论在译诗中的适应性和审美再现》[J]，鹭江职业大学学报，2004年6月第21期，第54页 [↑](#footnote-ref-2)
3. 罗梅红，《科技英语长句的特点及翻译—以〈风力发电行业国际标准〉为翻译实例》[D]，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12 [↑](#footnote-ref-3)
4. 许庆华，《从功能对等视角看英语长句翻译》[M]，现代交际，2013 [↑](#footnote-ref-4)
5. 이용해, 『중한 번역 교정』, 청도해양 출판사, 2000년, P114 [↑](#footnote-ref-5)
6. 廖七一，《当代西方翻译理论探索》[M]，译林出版社，2006，第128页 [↑](#footnote-ref-6)
7. 欧阳燕，《长句的逻辑翻译法》[J]，西安外国语学院学报，2005年第2期，第77页 [↑](#footnote-ref-7)
8. 장의원, 김일저,『중한 번역 교본』, 연변대학출판사,2003, P284 [↑](#footnote-ref-8)
9. 欧阳燕，《长句的逻辑翻译法》[J]，西安外国语学院学报，2005年第2期，第77页 [↑](#footnote-ref-9)